

工業化의 諸條件과 戰略에 관한 比較史的 研究

金 宗 炫

<目 次>	
1. 序 言	2. 독 일
II. 工業化의 諸條件과 戰略—19世紀	3. 日 本
1. 英 國	III. 工業化의 諸條件과 戰略—19世紀와 20世紀

I. 序 言

第2次大戰以後 經濟成長과 經濟開發의 問題는 經濟學의 重要한 課題로서 登場하게 되었다. 先進工業國에 있어서는 그들의 높은 工業生産力을 繼續적으로 發展시키고 1930年代의 大恐慌과 같은 經濟的 破局을 回避하면서 持續的인 經濟成長을 達成해야 한다는 問題가 經濟學의 重要한 課題로 提起되었고 그와 密接히 關連된 問題로서 後進國의 經濟開發 또는 工業化의 問題가 提起되었던 것이다.

後進國의 經濟開發 또는 工業化의 問題가 後述하는 바와 같이 後進國 스스로의 要求에 의해서 提起되고 따라서 自主的인 努力에 의해서 推進되어야 할 하나의 戰略이라는 것은 事實이지만 그것이 本來에는 先進工業國의 經濟成長의 持續이라고 하는 問題와 密接한 關連을 가지고 그러한 背景에서 提起되었다는 事實도 또한 否定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後進國의 大部分은 第2次大戰 以前에는 殖民地 또는 半殖民地의인 狀態에 놓여 있었던 나라들이다. 이들 諸國은 政治的 및 經濟的으로 先進工業國인 支配國에 從屬되어 獨自的인 行動을 取할 수 없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支配國에 從屬되어 그것을 통해서 對外的 關係를 가지고 있었다. 經濟的 側面에서 보면 그들은 獨自的으로가 아니라 支配國에 從屬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世界經濟와 連結되었던 것이다. 戰前의 世界經濟는 先進工業國의 相互關係로서 展開되었었지만 그 속에서 이들 諸國은 各各 殖民地를 支配

하고 그것을 그들의 經濟圈에 編入시킴으로서 이들 植民地를 支配하고 있는 先進工業國 相互間의 經濟關係로서의 世界經濟는 事實上 글로벌한 것이 되었다. 戰前의 先進工業諸國의 經濟成長은 크게 이러한 植民地體制下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第2次大戰은 그러한 植民地體制를 根本적으로 解體시키는 決定的 契機가 되었다. 過去 植民地 또는 半植民地化되었던 諸國은 戰後에 뒤를 이어 政治的 獨立을 이룩하게 됨으로써 經濟적으로도 植民地的 從屬體制에서 벗어나 自主的인 發展의 契機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現象은 戰前의 先進工業國의 經濟成長 乃至 經濟發展의 諸條件이 크게 變化되었다는 것을 意味한다. 무엇보다도 重要的 것은 世界經濟는 先進工業國 相互間의 經濟關係가 中心이 되고 過去의 植民地인 後進諸國은 그러한 關係에서 離脫 또는 分離되는 傾向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것은 높은 工業生産力에 對한 커다란 購買力과 原料供給源을 이들 地域에 依存해온 先進工業國으로서는 深刻的 問題가 아닐 수 없었다. 특히 戰後에 先進工業國에서 急速히 展開된 技術革新과 그것을 背景으로 한 高度의 生産力增加속에서 이들 諸國은 新生獨立諸國과의 經濟關係를 密接히 하고 그들을 世界經濟에 連結시킬 必要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戰前과 같은 植民地的 支配·被支配의 關係가 아니라 對等한 經濟關係를 통한 것이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後進國의 經濟는 植民地體制下에서와 같이 前近代的인 停滯的인 狀態가 아니라 先進工業國의 高度의 生産水準에 照應해서 開發될 必要가 있었다. 後進國의 經濟開發의 問題가 先進工業國의 關心에서 提起된 것은 이러한 背景에서였고 따라서 그것은 先進工業國의 持續的인 經濟成長의 遂行이라는 問題와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後進國의 經濟開發의 問題가 先進工業國의 要請에 의해서 提起되고 그러한 關心에서 論議될 경우 그들이 가지는 意義를 充分히 認定하면서도 거기에는 스스로 一定한 限界가 있다는 것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즉 經濟開發의 目標 및 方法이 主로 先進工業國의 立場에서 考慮되고 있으며 따라서 미르달(Gunnar Myrdal)이 指摘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後進國의 開發問題에 관한—引用者) 文獻의 大部分은 後進國 自身の 利害에 出發點을 求하지 않고 오히려 意識的인지 無意識的인지 先進國의 하나 또는 그의 集團의 國民的 政治的 利害에서 그들의 問題를 보고 있다⁽¹⁾”는 데에서 오는 限界이다. 後進國의 經濟開發問題에 對한 先進工業國의 認識과 接近이 이러한 一方的인 立場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이른바 “新植民地體制”의 關係를 完全히 否認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1) Gunnar Myrdal,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1957, p.100.

先進工業國의 立場에서 提起된 것이라고 해도 過去와 같이 그것을 一方的으로 強要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것은 後進國 스스로의 經濟開發을 위한 自主의 立場과 調和된 狀態에서 推進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後進國의 經濟開發論도 비록 그것이 先進工業國의 立場에서 提起되고 論議되어 왔다는 限界를 가지면서도 그것은 後進國의 自主의 經濟開發 乃至 工業化의 戰略을 위한 有效한 理論的 基礎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叙上한 限界는 어디까지나 後進國 自身の 自主의 工業化라는 認識과 그것을 위한 各國의 特殊한 社會經濟的 諸條件을 考慮에 넣은 戰略의 推進으로 克服될 수 있는 것이다. 事實 後進國의 經濟開發 乃至 工業化를 위한 戰略을 세우는데에는 그 前提로서 當該 諸國의 固有한 社會經濟的 諸條件을 究明한다는 것이 切實히 要請되는 것이다.

後進國의 工業化를 推進하는데 있어서 基本的인 前提로서의 그의 社會經濟的 諸條件을 究明하는데에 理論的 接近이 重要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後進國 相互間에서는 물론 한 나라에서도 多樣한 形態로 存在하는 그들 諸條件은 理論的 分析에 의해서 相當한 程度까지 그러한 外形의 多樣性 속에 흐르고 있는 一般性을 抽出하고 그것을 現實的, 具體的으로 有效하게 適用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同時에 이들 諸條件은 大部分의 경우에 歷史的 因果關係에 의해서 形成된 것이며 또한 그들이 나타나고 있는 諸國에 特殊한 것으로서 存在하고 있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그들 諸條件의 理論的 分析에는 歷史的 分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특히 一般化가 困難한 特殊한 條件의 究明에는 歷史的 接近이 必要한 것이다. 이러한 認識은 先進國에서는 經濟理論과 經濟史의 兩側에서 일찍부터 이루어지고 또한 그 위에서의 研究成果도 多數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充分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狀態이다. 이러한 現狀에서 本研究은 後進國의 工業化의 諸條件과 戰略을 歷史的, 具體的으로 究明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後進國의 工業化를 위해서 要請되고 있는 現實的 問題일 뿐 아니라 實踐的인 學問으로서의 經濟史學이 究明해야 할 學問的 課題이기도 한 것이다.

工業化는 오늘날의 後進諸國이 推進하고 있는 現實的 問題일 뿐만이 아니라 18世紀 中葉 以後 오늘날까지 繼續되고 있는 歷史的 過程이다. 近代經濟史는 어느 意味에서는 18世紀 中葉 以後 英國에서 遂行된 工業化가 餘他の 後進諸國에 波及되어 그것이 擴大되어 나아가는 過程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後進國이라든가 工業化라든가 하는 概念도 歷史的, 相對的인 것이 된다. 즉 後進國은 現在에만 存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9世紀 中葉 이라는 時點에서 볼 때 工業化된 英國에 對해서 現在의 先進工業國인 독일, 佛蘭西, 美國, 러시아, 日本 등은 後進國이었던 것이다. 이들 諸國은 시로 時期를 重複하거나 달리하면서

19世紀 中葉 以後에 工業化過程을 걸어 왔다. 로스토우(W. W. Rostow)에 의하면 英國에 시는 1783—1802年, 佛蘭西에서는 1830—60年, 독일에서는 1850—73年, 美國에서는 1843—60年, 러시아에서는 1890—1914年, 日本에서는 1878—1900年이 各國의 跳躍(take-off) 段階에 該當되는 期間이며 이 期間에 各各 工業化가 이루어 졌다⁽²⁾. 로스토우의 跳躍期에 對해서는 쿠즈네츠(S. Kuznets)의 實證的 反論⁽³⁾과 필리스 딘⁽⁴⁾(Phyllis Deane) 등의 批判이 있어 로스토우의 嚴密한 期間設定의 妥當性은 大體的으로 否定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批判이 있다는 것을 念頭에 두면서 우리는 로스토우의 跳躍期를 各國의 工業化가 集中的으로 行해진 大體的인 時期를 가르키는 하나의 指標로 보아도 無妨할 것이다. 이렇듯 工業化의 時期가 다른 것은 오늘날의 後進諸國에 있어서와 같이 19世紀의 後進諸國에서의 工業化의 諸條件이 나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關心에서 볼 때 이들 諸國의 諸條件과 戰略을 歷史的 個別的으로 究明한다는 것이 必要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諸條件이 나라에 따라서 特殊한 歷史的 因果關係에 의해서 個別的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만을 獨立的으로 抽出해서 分析하고 強調한다는 것이 歷史的研究의 全部는 아니다. 事實 하나의 史實은 孤立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實은 其他의 諸史實과의 關連을 따라서 一般性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孤立的인 現象이라 할지라도 一般的인 것 또는 다른 現象과의 對比에서 認識될 때 그의 意味가 보다 明確해진다. 따라서 우리는 諸國의 特殊性을 實證的으로 認識하면서도 그것을 보다 넓은 歷史的 關連에서 認識하고 位置지을 必要가 있다. 歷史的 認識에 있어서는 個別的 認識 위에 綜合的 認識이 必要한 것이며 그 方法으로서 比較史的 研究은 19世紀의 後進國 相互間의 比較뿐만 아니라 全體로서의 19世紀의 後進國이 直面한 諸條件과 全體로서의 20世紀의 後進國이 當面하고 있는 諸條件의 比較도 可能하고 또한 必要한 것이다. 이러한 比較史的 研究가 積極的 또는 消極的 意味에서 오늘날의 後進國이 當面하고 있는 問題의 解決에 一定한 寄與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國家間의 比較史的 研究로서 우리의 關心과 關連해서 重要한 것은 英國이다. 工業化라는 觀點에서 볼 때 英國의 工業化도 餘他諸國의 그것과 같이 하나의 工業化에 不過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歷史上 最初로 또한 自生的인 過程에서 이루어 졌다

(2) W. 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1960, p. 38.

(3) Simon Kuznets, *Economic Growth and Structure: Selected Essays*, 1965, pp. 222-7.

(4) Phyllis Deane,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1965, pp. 2-4; 姜命圭譯, 『英國經濟의 工業化過程』, 1968, pp. 2-4.

는 點에서 “古典的”인 것이었다. 그 後의 各國의 工業化는 英國의 工業化가 波及되어 그 의 挑戰을 받아 들이고 그에 意識的으로 對應하는 過程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工業化의 諸條件과 그의 歷史的 過程을 比較考察하는데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 英國의 경우를 ——그 自體가 相對的인 것이기는 하지마는——하나의 모델로 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方法이 有用하다고 생각된다. 英國의 工業化가 自生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工業化의 諸條件이 內的으로 成熟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歷史的으로 最初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어떠한 具體的 經驗을 모델로 해서 意識的으로 그것이 推進된 것이 아니라 自生的인 經濟過程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意味한다. 즉 거기에서는 工業化 以前에 이미 近代의 發展의 止要因으로서의 前近代의 社會諸關係는 止揚되고 그러한 속에서 農業生産性的의 上昇 특히 農村工業을 中心으로 한 工業의 發展 그리고 國內商業 및 外國貿易의 發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諸條件下에서 工業化가 展開된 英國에서는 그에 必要한 資本도 國內에서 蓄積되었고 技術革新도 英國人 自身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勞動力의 供給條件도 有利하게 作用했다. 이러한 工業化는 政府의 意圖된 努力에 의해서가 아니라 無數의 民間企業家에 의해서 各自의 企業家活動의 展開過程에서 遂行되었다. 따라서 英國의 工業化는 18世紀 中葉에서 19世紀 中葉에 이르는 約 1世紀라는 長期間에 걸쳐서 緩慢하게 遂行된 過程이며 그 속에서 國民의 經濟的 福祉도 많은 見解의 差異는 있으나⁽⁵⁾ 一般的으로는 向上되어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英國의 “古典的 形態”의 工業化에 對해서 餘他 諸國의 工業化過程은 오늘날의 後進國의 그것을 包含해서 커다란 差異를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端的으로 말해서 이들 各國의 工業化의 諸條件이 英國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는 事實에서 오는 當然한 結果라고 볼 수 있다. 英國以外的 諸國間에서도 또한 工業化의 諸條件이 서로 크게 다르다는 것은 後述하는 바와 같으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들에게 共通한 特徵은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工業化의 諸條件이 內的으로 充分히 成熟되지 못한 段階에서 工業化가 始作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경우의 工業化는 經濟主體에 의해서 위로부터 誘導되고 意識的으로 推進되게 되는 것이다. 後進國의 工業化過程 一般이 위로부터 誘導된 것이라는 點에서 共通한 性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속에서도 各國의 工業化의 諸條件은 相當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必要도 없으며 그러한 差異가 各國의 工業化過程에서 나타나는 性

(5) 拙稿, “産業革命과 勞働者의 生活水準—論爭史의 展望—”, 『經濟論集』, 第X卷 第1號, 1971年 3月 參照.

格의 差異를 結果하고 있다. 거셴크론(Alexander Gerschenkron)에 의하면⁽⁶⁾ 後進性的의 程度에 따라서 工業化를 誘導하는 經濟主體는 國家→銀行→民間企業家라고 하는 繼起的 變化過程을 거친다. 즉 後進性的의 程度에 따라서 工業化를 推進하는 經濟主體가 國家일수도 있고 銀行일수도 있고 또한 民間企業家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첫째의 例로서 工業化初期의 독일, 19世紀 後半에 工業化를 始作한 日本, 러시아 그리고 20世紀의 後進國一般을 들 수 있으며 둘째의 例로서 19世紀의 70年代以後의 독일과 佛蘭西 그리고 셋째의 例로서 英國을 들 수 있다. 이러한 經濟主體의 繼起的變化는 --國에 있어서도 工業化 또는 經濟發展의 段階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後進性的의 程度에 基礎를 둔 거셴크론의 工業化 모델은 19世紀 中葉以後에 工業化過程을 밟은 當時의 英國에 對한 後進諸國에는 相當한 程度까지 適用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오늘날의 後進國에도 같은 程度로 有效하게 適用될 수 있는지는 보다 檢討해 보아야 할 問題이다. 왜냐하면 19世紀 中葉以後에 工業化된 當時의 後進國과 20世紀의 오늘날의 後進國과의 사이에는 “後進性的의 程度”에 의해서 比較될 수단은 없는 歷史的 諸條件의 差異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쿠즈네츠는 19世紀의 後進國에 있어서 보다도 오늘날의 後進國에 있어서 1人當 國民所得이 낮고 또한 所得分配가 不公平하고 社會的 및 經濟的 諸條件이 不利하다는 事實을 指摘하고 있다⁽⁷⁾. 한편 딘(Phyllis Deane)은 產業革命前夜의 英國의 經濟的 水準은 오늘날의 後進國에 比해서 훨씬 높은 것이었다고 指摘하고 있다⁽⁸⁾. 그러한 諸條件에 우리는 技術水準, 資本規模, 人口問題, 消費水準의 差 등 오늘날의 後進國이 直面하고 있는 困難한 諸條件을 附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世紀의 後進國과 오늘날의 後進國의 工業化의 條件으로서의 差異는 叙上한 量的 側面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根本的으로는 質的 側面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前者에서는 前近代의 政治經濟 및 社會體制가 解體되는 過程에서 바로 그것이 近代의 發展과 連結될 수 있었는데 對해서 後者に 있어서는 大部分의 경우 그러한 前近代의 體制가 完全히 克服되기 前에 植民地의 支配下에의 編入은 強要當함으로서 그러한 前近代의 體制가 溫存된 속에서 跛行的인 經濟過程을 걷어 왔다는 것이다⁽⁹⁾. 事實 叙上한 量的 條件의 差異는 根本的으로는 이러한 質的 條件의 差異에서 結果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6) Alexander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A Book of Essays*, 1962.

(7) Simon Kuznets, *op.cit.*, pp.177-185.

(8) Phyllis Deane, *op.cit.*, pp.5-19; 譯書, 5-20面.

(9) Paul.A.Baran,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1957, Chapter Five; 李賢宰·金秀行譯編, 『經濟發展論』, 1968年, pp.59-91.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後進國이 工業化를 하는데에 있어서는 19世紀의 後進國에 比해서 困難한 條件下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工業化의 展望에 對해서 相當한 悲觀論的 見解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¹⁰⁾.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悲觀的인 것만은 아니다. 19世紀와 20世紀의 後進國사이의 質的條件의 差異도 後述하는바와 같이 植民地體制의 存否를 除外한다면 크게 程度의 差異로 還元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20世紀의 後進國의 工業化의 諸條件도 비록 그것이 相對的으로 困難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決코 克服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後進國의 工業化가 하나의 國民的인 目標로서 國家的인 規模에서 그를 위한 努力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事實을 一見 位置하더라도 經濟的인 側面에서도 쿠즈네츠⁽¹¹⁾와 거셴크론⁽¹²⁾이 指摘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後進國 一般에 有利한 條件은 存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諸條件을 客觀的으로 究明하고 그것을 基礎로 한 戰略을 세운다는 것은 따라서 工業化를 위한 努力에서 가장 基本的인 것이다.

이러한 問題意識에서 本研究는 工業化의 諸條件과 戰略을 比較史的으로 考察하고 그것을 통해서 現在의 工業化의 問題에 接近하려고 試圖한 것이다. 이러한 方向에서의 研究는 諸外國의 經濟史學界에 比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實情이다. 특히 19世紀의 後進國과 오늘날의 後進國의 工業化條件의 比較研究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先進國에서도 많지 않다. 本研究에서도 그러한 問題는 하나의 問題提起로서 檢討된다는 程度이며 따라서 그의 論議도 試論的인 範圍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觀點에서의 研究는 반드시 必要하다고 생각되며 今後의 成果가 期待되는 것이다.

II. 工業化의 諸條件과 戰略—19世紀

1. 英 國

英國의 工業化의 始期에 관해서는 學者들 사이에서 반드시 意見의 一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로스토우(W.W. Rostow)⁽¹³⁾는 國民所得에서 차지하는 投資率의 急增을 基準으로 해서 1783年을, 호프만(W. G. Hoffmann)⁽¹⁴⁾은 工業生産率의 急增을 基準으로 해서 1780年을 그의 始期로 보는데 對해서 네프(J.U. Nef)⁽¹⁵⁾는 技術的 進歩와 企業規模의 擴大를 基

(10) 本稿 p.41 參照.

(11) S. Kuznets, *op.cit.*, pp.186-190.

(12) A. Gerschenkron, *op.cit.*, p.8.

(13) W.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1960, pp.38-9.

(14) W.G. Hoffmann, *British Industry 1700-1950*, 1955, p.30.

(15) J.U. Nef, "The Progress of Technology and the Growth of Large-Scale Industry in Great Britain," *Economic History Review*, V. 1934, reprinted in E.M. Carus-Wilson (ed.), *Essays in Economic History*, 1954, p.105.

準으로 해서 16世紀와 17世紀初에까지 遡及해서 그의 始期를 設定하고 있다. 經濟發展過程을 斷續的인 過程의 繼起로 보는 로스토우와 호프만에 있어서는 工業化를 比較的 短期間에 急速히 이루어지는 過程으로 보고 있는데 對해서 그것을 連續的인 擴大의 過程으로 보는 네프에 있어서는 工業化는 16世紀以來 繼續的으로 이루어진 過程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工業化를 經濟의 急速한 量的擴大만이 아니라 質的變革의 過程으로 보는 토인비(A. Toynbee)⁽¹⁶⁾와 애슈톤(T.S. Ashton)⁽¹⁷⁾은 前者가 經濟發展過程을 斷續的인 過程으로 보고 後者가 그것을 連續的인 過程으로 보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1760—1830年을 英國의 工業化의 時期로 보는데에 있어서 見解를 같이하고 있다. 英國의 工業化에 관한 두가지 相異한 立場을 代表하는 兩者의 主張과 其他의 諸說을 基礎로 해서 오늘날 英國의 工業化는 18世紀 中葉에서 19世紀 中葉에 이르기까지의 1世紀間에 걸키기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一般的이다⁽¹⁸⁾.

工業化 前夜인 18世紀 中葉의 英國의 經濟의 水準 및 特徵은 19世紀 中葉에 工業化된 諸國 또는 오늘날의 後進國의 그것에 比해서 어떠한 것이었던가. 필리스틴은 20世紀의 前工業經濟의 特徵으로서 貧困性, 停滯性, 農業依存性, 職業未分化, 地域統合度の 低位를 들고 그것을 當時의 英國과 比較하고 있다⁽¹⁹⁾. 필리스틴은 킹(G. King), 매시(Joseph Massie) 및 핏트(Sir William Pitt)의 數字에 依據해서 英國의 1人當 國民所得은 17世紀末에는 £8—9, 1750年代에는 £12—13 그리고 18世紀末에는 £22 이었다고 推算하고 於간의 物價變動을 考慮에 넣으면 1750年의 £12는 1950年代의 £70에 相當한다고 한다. 1人當國民所得 £70 라는 것은 1960年代 初에 나이지리아(Nigeria)의 £30 그리고 印度의 £52에 比하면 오늘날의 後進國의 所得水準으로 보아도 相當히 높은 것이며 그것은 20世紀 中葉의 中南美諸國의 平均所得水準에 比等한 것이다. 이러한 國民所得 統計가 만드시 正確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工業化前夜의 英國民一般의 所得水準이 오늘날의 後進國一般의 그것에 比해서 높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그것은 當時 유럽에서 가장 富裕한 나라의 하나인 佛蘭西의 水準보다도 높았던 것이다. 한편 經濟的 停滯性이라는 면에서 보면 18世紀 中葉의 英國에 있어서 1人當 國民所得의 年平均 成長率은 0.5%로서 그 自體로서는 停滯的인 것은 아니었으나 經濟成長을 가져 오기에는 不充分한 것이었다. 그것이 經濟成長을 促進할 수 있을 만큼 充分하지 않았다는 意味에서의 停滯性은 또

(16) A. Toynbee, *Lectures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Eighteenth Century England*, 1884.

(17) T.S. Ashton, *The Industrial Revolution 1760-1830*, 1948.

(18) Phyllis Deane,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p.4. 譯註, p.4.

(19) *Ibid.*, pp.5-18. 譯書, pp.5-20.

한 硬直인 社會的 및 制度的 側面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8世紀 中葉의 英國民의 經濟活動이 壓倒的으로 農業에 依存하고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當時의 農村人口는 全人口의 60~70%에 達하고 있으며 특히 毛織物工業과 같은 主要工業도 家內工業의 形態이고 農業에 從屬된 것이었다. 그러나 當時의 英國의 農業依存度는 總人口의 80%가 農業人口라는 基準을 가지고 後進國으로 보는 싱거(H. Singer)⁽²⁰⁾의 立場에서 보면 減退傾向에 있으며 그만큼 都市化가 進展되고 있는 것이다. 職業分化도 初期의인 段階에 있었으나 오늘날의 亞細亞 및 아프리카의 若干의 後進諸國에 比해서는 그것은 進展되고 있었다. 發展된 市場經濟와 함께 分業이 發達하고 勞動에 生計를 依存하는 無產者가 增加하여 國民所得의 3分の 1以上이 賃金 및 給料에 支給되고 있었다. 오늘날의 나이지리아에서는 그것은 10% 以下에 머물고 있다. 뿐만 아니라 株式會社形態의 特權貿易會社, 保險業, 잉글랜드銀行을 中心으로 하는 整備된 銀行制度 등 發達된 專門的인 經濟組織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地域統合度の 低位라는 特徵도 18世紀中葉의 英國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地方的 市場圈에 따라서 物價 및 賃金도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大陸의 諸國에 比해서 全國的 市場圈의 形成이라는 點에서 英國은 앞서고 있는 것이다. 叙上한 바와 같이 18世紀 中葉의 英國에서도 貧困性, 停滯性, 農業依存性, 職業未分化, 地域統合度の 低位 등 前工業社會 또는 傳統社會의 諸特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그들은 19世紀 中葉에 工業化를 始作한 諸國 및 오늘날의 後進國의 前工業段階에 比해서 그 程度에 있어서 훨씬 적은 것이었다. 그만큼 英國에서는 18世紀 中葉에 이르기까지 이미 工業化를 위한 有利한 諸條件이 스스로의 經濟過程에서 形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英國의 相對的으로 有利한 工業化의 前提條件을 結果한 工業化 以前의 社會經濟的 發展過程은 어떠한 內容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問題는 여러가지 側面에서 考察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農業, 工業 및 商業의 展開過程에서 보기로 한다. 農業依存도가 높은 前工業社會에 있어서 農業은 그 社會의 生産力의 基本이 될 뿐만 아니라 前近代的 社會關係가 集中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部門인 만큼 工業化의 前提條件으로서 어느 程度의 農業生産性의 向上과 農村分化=社會分化가 進展되어야 한다. 또한 工業化가 工業部門에서의 機械技術의 導入에 의해서 産業上의 大變革을 가져 오는 過程인 만큼 工業化前段階에 있어서의 工業은 그것이 自然的으로 工業化되기 위해서는 그에 照應한 發展이 있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生産部門에서의 發展에 對應해서 市場條件도 有利하게 展開되어

(20) H. Singer, "The Concept of Economic Growth in Economic Development," in Eastin Nelson (ed.), *Economic Growth*, 1960, p.73.

야 하는 것이다.

工業化前夜의 英國農業은 相當히 近代化되고 있었다. 英國農業은 16世紀 以來 營利的 經營이 展開되어 왔고 특히 17世紀後半 以後의 새로운 作物에 의한 輪作方法의 導入에 의해서 單位當 農業生産性은 크게 增加하고 그 結果로서 많은 穀物이 大陸에 輸出되고 있었다. 農業技術의 變革은 農村構造의 變化를 前提로 하고 또한 그것은 더욱 促進시켰다. 인클로우저는 16世紀의 인클로우저運動 만큼 急激한 것은 아니었으나 17世紀 및 18世紀에도 繼續되어 開放耕地制度가 相當히 止揚 되었고 그 속에서 農民分화가 이루어지고 地主의 大土地所有制를 中心으로 한 資本家의 大農經營이 展開되고 있다. 英國의 農業革命은 工業化가 進展되는 18世紀 後半과 19世紀 初에 걸쳐서 展開된 議會인클로우저(parliamentary enclosure)에 의해서 完成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특히 技術的 側面에서 18世紀 前半에 이미 相當히 進展되고 있는 것이다. 農業技術의 變革과 資本家의 大農場經營의 擴大에 의한 農業生産性의 大增加를 그의 主要內容으로 하는 英國의 農業革命은 工業化에 先行해서 또는 그와 併行됨으로서 工業化의 條件으로서 重要한 役割을 했다⁽²¹⁾. 무엇보다도 그것은 增大하는 非農業人口에게 充分한 食糧을 供給함으로써 不足食糧의 輸入에 支出된 外貨를 節約했다. 뿐만 아니라 英國農業은 18世紀末에 이르기까지 相當한 穀物의 輸出能力을 가지고 그것으로서 工業化에 必要한 外貨를 獲得했다. 오늘날의 後進國이 農業國이면서 食糧의 自給이 困難한 狀態에 있다는 事情과 對比해서 이것은 매우 重要하다. 이러한 農業의 發展은 農家所得 특히 地主와 農業經營者의 地代 및 農業利潤을 增大시키므로서 그들에게 資本蓄積을 可能케 하고 그러한 農業資本은 工業化에 必要한 資本으로서 利用되었다. 또한 이러한 農家所得의 增大는 農家の 購買力을 增大시키고 工業生産을 刺戟했다. 英國의 工業生産의 大擴大는 從前에 생각되어 온 것과는 달리 不安定한 外國需要보다도 農村을 中心으로 하는 國內需要의 增大에 크게 依存하고 있는 것이다⁽²²⁾. 政府收入의 大部分은 農家가 負擔했고 그만큼 工業 및 商業部門의 負擔이 輕減됨으로서 그들의 發展이 促進되었다. 單位當 農業生産性의 增加가 農業勞動力의 都市工業勞動力에의 轉換을 可能케 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勞動力의 可動性은 傳統的 農業制度의 崩壞에 의해서 制度的으로도 促進되었다. 특히 인클로우저運動의 過程에서 土地를 喪失한 農民은 農業 또는 工業勞働者가 되었다. 最近의 研究에 의하면⁽²³⁾ 인클로우저運動이 小農

(21) 工業化以前の 英國의 農業發展과 그것이 經濟成長에 미친 影響에 관해서는 拙稿, 「近代英國農業의 展開와 經濟成長」, 『經濟論集』, 第Ⅵ卷 第3號, 1967年 9月 參照.

(22) P. Deane, *op.cit.*, p. 49.

(23) J.D. Chambers & G.E. Mingay, *The Agricultural Revolution 1750-1880*, 1966; 拙稿, 「18世紀 英國의 地主와 農業」, 『經濟論集』, 第Ⅲ卷 第2號, 1964年 6月 및 “農業革命”(書評), 『經濟論集』,

沒落의 直接的인 原因은 아니며 그것에 의해서 그들이 追放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것이 前近代의 農村構造를 最終的으로 解體시키고 勞動力의 可動性을 制約하던 諸要因을 根本的으로 除去했다는 것은 事實이다.

工業化前夜에 이르기까지 英國의 工業도 이미 오랜 傳統을 가지고 發展했 왔으며 또한 變革의 徵兆도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毛織物工業을 中心으로 한 섬유工業은 農村工業으로서 “國民的 產業”으로 發展하고 있었다. 毛織物工業은 地域的으로 西部地方, 이스트 앵그리아(East Anglia)地方 그리고 요크셔(Yorkshire)의 웨스트라이딩(West Riding)地方에 集中되었고 生産組織도 前二者의 地域에서는 商人 또는 富裕한 絹로더어(clothier)에 의한 先貸制下에 있었는데 對해서 後者の 地域에서는 獨立的인 小資本家에 의한 小經營이 廣範하게 存在하고 規模는 적으나 매뉴팩츄어(manufacture)的인 經營이 展開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毛織物工業에서는 18世紀 前半에 이미 技術的 變革에의 試圖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토오마스 롬(Thomas Lombe)은 1717년에 이탈리아傳來의 撚絲機를 設置한 工場을 建設하고 있으며 技術革新의 導火線이 된 존 케이(John Kay)의 飛杼(flying shuttle)는 1733년에 發明되었고 폴(Lewis Paul)은 비록 成功하지는 못했으나 1738년에 이미 紡績機製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17세기以來의 傳統을 가지고 16·7世紀에 크게 發展한 鐵工業은 18世紀 初에는 燃料로서의 木炭不足으로 말미암아 停滯하고 있었지만은 製鐵用 燃料을 木炭에서 石炭으로 轉換하기 위한 努力은 다아비(Abraham Darby)에 의해서 1709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고 1740年代에는 헨스맨(Benjamin Huntsman)에 의해서 코르크스를 利用한 鐵鋼法이 考案되고 있다. 鐵製品生産도 버밍검(Birmingham), 셰필드(Sheffield) 등의 諸地域에 集中해서 發展하고 있다. 炭鑛業에서는 通風, 排水 및 輸送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努力이 이루어지고 있다. 1698년에 사버리(Thomas Savery)는 蒸氣를 利用한 揚水機를 發明했고 1708년에 뉴코멘(Thomas Newcomen)은 氣壓機關을 發明하고 있다. 특히 後에 윌트(James Watt)의 蒸氣機關發明의 契機가 된 뉴코멘의 氣壓機關은 坑内の 排水問題解決에 큰 貢獻을 했던 것이다.

流通部門도 生産部門에 對應한 發展을 하고 있다. 商業發展의 前提로서의 交通手段의 큰 發展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따라서 地域의 市場闊이 存在하고 그것이 全國的 商品流通을 制約하는 側面은 있었으나 그러한 속에서도 英國의 全國的 市場의 形成은 進展되고 있었다. 工業化前夜에 이르기까지 道路狀態가 劣惡하고 其他 交通手段의 改善이 이루어 지

지 못했는데 英國의 全國의 交易의 擴大를 結果한 重要한 原因은 地理的 條件에 의해서 海岸 및 河川을 利用해서 英國의 大部分의 內陸地方까지 到達할 수 있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自然的 條件은 大陸諸國에 있어서와는 달리 交通手段의 近代的 變革이 이루어지기 以前에 全國의 商品流通을 可能케 했다는 點에서 英國에게는 매우 有利한 것이었다. 國內 商業보다도 英國에서는 특히 外國貿易이 일찍부터 活潑히 展開되어 왔다. 事實 英國重商主義는 英國으로 하여금 外國貿易의 主導權을 掌握하게 했던 것이다. 英國의 貿易商品構成은 輸入은 주로 原料品이고 輸出은 穀物을 除外하면 주로 工業製品으로 되어 있다. 地域的으로는 英國-아프리카-西印度 諸島를 잇는 有名한 三角貿易이 있으나 그것은 北美 및 印度貿易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重要한 것이 아니며 가장 重要한 것은 유럽大陸과의 交易이었다. 특히 이러한 貿易去來에 있어서는 株式會社形態의 合本會社(joint-stock company)가 組織되고 있으며 이러한 活潑한 貿易活動 속에서 莫大한 商業資本이 蓄積되고 있다. 商業 특히 外國貿易의 發達は 信用制度의 發達을 結果했다. 런던은 當時 이미 世界의 金融市場의 하나의 中心地이며 거기에는 1694년에 設立된 잉글랜드銀行을 비롯해서 精巧한 金融制度가 存在하고 있었던 것이다⁽²⁴⁾.

以上에서 우리는 18世紀 中葉에 있어서의 英國의 經濟的 樣相을 考察했다. 그것은 英國의 自生的 工業化的 遂行을 위한 前提條件으로서 어떻게 評價될 수 있을 것인가. 當時 이미 英國은 相當한 經濟的 水準에 到達했었다는 것은 叙上한 바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딘이 指摘하는 前工業社會의 特徵으로부터 脫皮한 것은 아니다. 農業에 있어서는 아직도 開放地制度가 優勢하고 共同權이 一般的으로 存在하여 그만큼 慣習의인 共同耕作의 慣行이 存續되고 있으며 飼料作物을 導入한 四輪作을 內容으로 하는 노오포크農法(Norfolk System)도 잉글랜드의 東南部地方에서 普及되기 始作했음에 不過하여 穀物不足-飼料不足-家畜不足-穀物不足이라고 하는 中世以來의 農業生産에서의 惡循環을 切斷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壓倒의 重要性을 가지고 있던 農業은 制度的으로나 技術的으로나 前近代的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英國 經濟全體에 前工業經濟의 性格을 賦與하고 있었다. 工業에 있어서도 一部에 매뉴팩츄어가 出現하고 있기는 하나 一般的으로는 農村工業으로 先貸制下에서 經營되고 賃金은 成果拂(piece rate)로 支給됨으로서 商人의 搾取의 對象이 되었다. 技術的으로도 그것은 一般的으로 手工業의 段階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石炭業과 鐵工業은 排水와 燃料問題로 停滯되고 있었다. 한편 國內商

(24) T.S. Ashton, *op.cit.*, pp.28-47 參照.

業에 있어서는 地域的 市場圈이 存在함으로써 地域的 統合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有利한 自然的 條件에 크게 依存한 交通便利도 反面 自然的 制約을 隨伴했다. 外國貿易은 主로 特權商人에 獨占되고 있으며 金融組織도 그들과 主로 關連을 가지고 있었다. 이 以外에 例를들면 1662年 및 1795年의 住居地制限法(Laws of Settlement)이 勞動力移動을 制限한 것과 같이 前近代의 諸立法이 舊秩序의 維持에 一定한 作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工業化前夜의 英國에 있어서도 前工業社會의 特徵으로서의 貧困, 停滯, 農業依存性, 職業의 未分化 및 地域的 未統合 등이 一般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諸特徵은 絶對的인 것도 아니며 또한 固定化된 것도 아니었다. 叙上한 바와 같이 그들 前工業社會의 諸特徵이 나타날 程度는 相對的으로 19世紀 中葉에 工業化하는 어느 나라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오늘날의 前工業化段階의 어느 後進國에서 보더라도 解弛된 것이었다. 農業, 工業 및 商業 등 經濟活動 全般에 制度的으로 前近代의 要素가 一般的으로 存在하고는 있으나 그것은 固定化된 것이 아니라 變化될 수 있는 狀態에 있었으며 事實 變化하고 있었다. 技術的 側面에서도 낡은 生産力體系를 벗어 나려고 하는 先驅的 努力이 이미 廣範히 展開되고 있으며 그것은 相當한 成果를 가져 오고 있다. 事實 工業化過程에서 나타난 一連의 技術革新은 이러한 先驅的 努力을 基礎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18世紀 中葉 以前에 英國經濟에 있어서는 自體內에서 새로운 發展을 할 수 있는 諸條件이 成熟되어 왔으며 그것이 結合되어 自生的으로 工業化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750년에는 이미 人口, 物價 生産量 및 所得趨勢가 모두 上昇하고 있는 것이다.

英國의 工業化는 農業, 工業 및 商業에 있어서의 全般的인 技術革新과 制度的 變革의 過程이었다. 그 속에서 生産性이 크게 增大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農業에 있어서는 인클로우저가 進行되어 耕地가 擴大되고 開放耕地制가 消滅되어 合理的 經營의 基盤에서 資本家의 大農經營이 確立되었다. 新農法이 普及되어 農業生産性은 크게 上昇했다. 農業의 發展은 적어도 工業化前期에 食糧을 自給할 수 있게 했고 農家收入의 增加는 增大하는 工業製品에 安定的 市場을 提供했다. 工業에 있어서도 綿工業과 鐵工業을 中心으로 아아크라이트(R. Arkwright), 하아그리브스(James Hargreaves), 크롬프턴(S. Crompton), 카아트라이트(E. Cartwright) 등에 의한 一連의 諸發明과 코오트(H. Cort)의 製鋼法의 發明 등에 의해서 技術革新이 이루어지고 윌트(J. Watt)의 蒸氣機關의 發明은 結果的으로 石炭業 및 鑛業에 革新을 가져 왔을 뿐만 아니라 交通機關變革의 基動力이 되었으며 工業에서의 諸發明과 함께 工場制度를 가져 오는데 큰 役割을 했다. 有料道路—運河—鐵道라는 繼起的 過程에서 展開된 交通機關의 變革은 生産擴大에 貢獻했을 뿐만 아니라 地域的

統合—全國的 經濟統合을 實現시키고 國內市場을 擴大시키고 商業을 革新했다. 이러한 變革은 어느 한 部門에서만이 아니라 相互作用하면서 重要的 部門 全體에서 同時적으로 일어났다. 로스토우는 綿工業을 英國經濟의 跳躍에서의 主導部門으로 보고 있지만⁽²⁵⁾ 그에 못지않은 重要的 變革이 鐵工業에도 일어났고 또한 工業만이 아니라 農業에서도 流通過程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英國의 工業化는 어느 經濟主體의 戰略에 의해서 誘導된 것이 아니라 多數의 民間企業가들에 의해서 經驗적으로 遂行된 것이다. 叙上한 諸發明과 諸革新도 그 大部分이 無名의 人士에 의해서 經驗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어떠한 機關에 의해서 科學的 研究의 意圖된 結果로서 나타난 것은 아니다. 事實 英國工業化의 主役은 모든 社會層과 모든 地方으로부터 나온 有名·無名의 多數의 民間인들이며 그들의 自由로운 競爭속에서 “經濟人”(homo oeconomicus)으로서의 本質을 追求하는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農業改良에 大地主=貴族과 農業經營者들의 役割이 컸다는 것은 當然한 일이지마는 地主들은 商人과 함께 鑛業을 비롯해서 道路, 運河, 鐵道 등 社會間接資本의 形成에도 큰 役割을 했다⁽²⁶⁾. 近代의 工場制度의 아버지라고 불리어지는 아아크라이트가 假髮師였다는 것은 有名하며 제임스 윌트는 大學의 技師였다. 따라서 工業化에 必要的 資本도 이들 廣範한 社會層의 自己金融에 依存했으며 政府는 勿論 銀行의 役割도 그리 큰 것은 아니었다. 整備된 銀行制度가 資本供給에서 一定한 貢獻을 했다는 것은 事實이지만은 그러나 工業融資를 한 多數의 地方銀行은 主로 企業의 運營資金을 融資했으며 런던의 諸銀行은 工業企業보다도 商人에의 融資가 重要했다. 社會間接資本의 形成과 鑛業 등 比較的 巨額의 資本은 政府가 아니라 地主=貴族과 商人資本이 重要的 役割을 했지만은 工業資本은 工業家自身에 의해서 負擔되었다. 즉 工業家は 小規模의 經營에서 始作해서 必要資本을 스스로 負擔함과 同時에 不足分을 懇戚 및 親知 등의 人的關係를 통해서 調達했고 끊임없이 利潤을 再投資하면서 企業을 擴大해 나갔다. “產業資本은 그 自身の 가장 主要한 源泉이었다”.⁽²⁷⁾ 그들이야말로 “產業의 指揮官”(Captain of Industry)이었던 것이다. 英國에는 이미 相當한 民間資本이 蓄積되고 있었다. 그것은 런던 및 地方의 多數의 銀行에 의해서 產業資本化되었지만은 貯蓄組合 및 友愛組合 등에 의해서 貯蓄된 資金과 個人資金이 이들 產業資本가들을 통해서 스프스하게 產業資本化되었다. 民間에 의한 自生的 工業化의 過程에서 政府는 工業化의 方向에 어떠한 影響을 줄만큼 積極的 役割을 하지는 않았다. 政府의 役割이 從前에 생각되어 온

(25) W.W. Rostow, *op.cit.*, pp.53-4.

(26) 拙稿, 「18世紀 英國의 地主와 農業」參照.

(27) T.S. Ashton, *op.cit.*, p.97.

바와 같이 民間의 經濟活動을 放任했다는 消極的인 面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政府는 工業化에 障礙가 될 수 있는 諸法律을 廢棄하고 成長하는 都市의 衛生狀態의 改善에 努力하고 工場立法을 制定施行하고 銀行 鐵道 등을 法的으로 規制하고 自由貿易을 確立하는 등 工業化에 有利한 外的條件을 造成했다는데에서 그의 役割이 積極的으로 評價되어야 한다고 主張되고 있다⁽²⁸⁾. 그러나 戰略的으로 工業化를 誘導하지는 않았다는 意味에서 政府의 役割은 消極的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英國의 工業化는 政府라던가 銀行 등 少數의 有力한 機關에 의해서 意識的으로 遂行된 것이 아니라 無數의 “産業의 指揮官”들에 의해서 經驗的으로 遂行된 것이다⁽²⁹⁾.

2. 독 일

로스토투는 독일에 있어서의 跳躍時期를 1850—1873年으로 보고 있다⁽³⁰⁾. 독일의 本格的인 工業發展은 1870—80年代에 急進展되는 것임으로 로스토투의 跳躍時期단을 독일 工業化의 時期로 볼 수는 없지마는 독일의 工業化가 1840—50年頃을 始期로 한다는데에는 一般的으로 意見이 一致되고 있다⁽³¹⁾. 따라서 로스토투의 跳躍時期는 독일의 初期工業化의 時期가 된다.

노울즈(L.C.A. Knowles)는 19世紀 初의 독일이 佛蘭西보다 50年 그리고 英國보다는 200年이나 後進狀態에 있었다고 指摘하고 있다⁽³²⁾. 유럽諸國이 일찍부터 國民의 統一國家라는 基盤 위에서 經濟的 發展을 推進해온데 對해서 독일은 19世紀 初에도 39個의 小領國으로 分立되어 그들이 各各 獨立的 政治 및 經濟單位를 이룩하고 있으므로 해서 全國民的 基盤에서 經濟發展을 이룩하지는 못했다. 즉 各領國은 獨自的인 關稅體系와 貨幣金融制度를 가지므로서 經濟圈이 限定되고 있었고 個個의 領國內에서도 國內關稅의 賦課 및 錢幣를 비롯한 封建的 諸關係의 存續으로 商品流通과 自由로운 經濟活動은 크게 制約되고

(28) P. Deane, *op.cit.*, pp.202-219.

(29) 英國의 産業革命 또는 工業化에 관해서는 無數한 文獻이 나오고 있다. 이미 引用된 文獻以外에 代表的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P. Mantoux,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Eighteenth Century*, 12th ed., 1961, with Introduction by T.S. Ashton; J.H. Clapham, *An Economic History of Modern Britain*, Vol. 1. 1939; A.L. Beales, *The Industrial Revolution*, 1958; T.S. Ashton, *An Economic History of England: The Eighteenth Century*, 1955; Peter Mathias, *The First Industrial Nation: An Economic History of Britain 1700—1914*, 1969.

(30) W.W. Rostow, *op.cit.*, p.38.

(31) H.J. Habakkuk & M. M. Postan(ed.),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Volume VI: *The Industrial Revolutions and After, Part I*, 1965, pp.15-7.

(32) L.C.A. Knowles, *Economic Development in the Nineteenth Century, France, Germany,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1932. p.160.

있었다. 한편 自然的 條件도 經濟發展에는 不利하게 作用했다⁽³³⁾. 첫째 各地에 散在하고 있는 耕地에 不適當 荒蕪地는 그곳에서 成長하는 都市人口의 扶養을 困難하게 했으며 둘째로 主로 邊境地方에 偏在된 鑛山資源은 鐵道網이 完成되기 前에는 工業에 有効하게 利用될 수가 없었으며 셋째로 港口都市는 地理的으로 不利한 位置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英, 佛, 덴마크 등의 優勢한 海運力에 壓迫되고 있었던 것이다. 政治的 및 自然的 條件과 함께 독일의 經濟發展을 크게 阻害한 것은 戰爭이었다. 독일經濟에 莫甚한 被害를 주었던 17世紀의 30年戰爭의 被害로부터 回復하지도 못한채 나폴레옹(Napoleon)支配下에서 독일經濟는 더욱 疲弊했다. 이러한 背景에서 民間의 資本蓄積은 困難했고 企業活動은 萎縮되었다. 길드制度는 農村工業의 發達을 阻害했던 것이다⁽³⁴⁾.

이러한 狀態에서 독일의 工業化가 英國에서와 같이 民間에 의한 自生的인 過程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期待할 수는 없었으며 그것은 國家의 意識的 努力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事實 독일의 工業化는 政治的 및 經濟的으로 가장 有力한 領國이었던 普魯士亞(Prussia)를 中心으로 하는 國家의 위로부터의 意識的 努力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國家의 工業化努力은 먼저 工業化를 위한 基礎的 諸條件의 造成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政治的 統一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容易한 일이 아니었으므로 그에 앞서서 經濟的 統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1834년에 普魯士亞를 主導로 해서 組織된 關稅同盟(Zollverein)은 바로 이러한 努力의 結晶이었다. 그에 앞서 1818년에 普魯士亞는 마아센(Karl Georg von Maassen)이 立案한 關稅法(Zollgesetz)을 制定해서 多數의 國內關稅를 撤廢하여 單一經濟圈을 創出하고 있었다. 普魯士亞는 領國內의 單一經濟圈形成을 基盤으로 해서 全國的인 單一經濟圈의 形成을 志向했던 것이다. 그러한 要請에서 나타난 關稅同盟은 처음에는 17個領國間에 締結되었으나 1854년까지에는 독일의 거의 大部分의 領國을 網羅하게 되었다. 여기에 독일은 1871년의 政治的 統一에 앞서서 經濟的 統一을 實現했다. 또한 1838年 以後 貨幣制度도 漸次的으로 統一됨으로서 經濟的 統一의 實을 올렸던 것이다⁽³⁵⁾.

全國的 市場圈의 形成과 함께 工業化의 前提條件으로서 독일은 封建的 諸關係를 一掃하고 그것을 近代的인 것으로 轉換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즉 農奴制度和 길드의 撤廢이다.

(33) W.O. Henderson, *The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Continent, Germany, France, Russia 1800—1914*, 1961. pp.13-4; L.C.A. Knowles, *Ibid.*, p.155.

(34) 독일의 經濟的 後進性에 관해서는 L.C.A. Knowles, *Ibid.*, pp.156-160.

(35) 關稅同盟에 관해서는 L.C.A. Knowles, *op. cit.*, pp.255-274 및 W.O. Henderson, *The Zollverein*, second ed., 1959 參照.

農奴制度的 撤廢는 佛蘭西革命 以前에 이미 독일의 啓蒙君主들에 의해서 위로부터 試圖되고 있었다. 例를 들면 굴쓰헤르(Gutsherr)의 苛酷한 支配下에 農民이 隸屬되고 있던 普魯시아에서는 18世紀를 通해서 君主가 王領地에서의 農民負擔의 輕減 또는 農奴解放을 行하였고 오오스트리아(Austria)에서도 같은 措置가 取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東部 독일에 一般的으로 存在하고 있는 農場領主制(Gutsherrschaft)는 農民의 隸屬的 地位를 強化하고 있었고 西部 및 西南部 독일에서는 農奴制가 衰退해서 農民의 身分的 隸屬關係는 消滅하고 있었으나 土地保有에 關連된 封建的 諸負擔은 殘存됨으로서 前近代의 遺制를 拂拭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西部 및 西南部 독일에서는 佛蘭西의 支配下에서 佛蘭西의 人 土地改革이 斷行되었다. 諸領國에서 18世紀末에서 19世紀初에 걸쳐서 農奴制가 撤廢되고 農民의 土地所有關係가 確立되었지만은 그것은 農民의 身分的 隸屬關係를 一部시켰을 뿐 土地保有와 關連된 諸負擔은 殘存했다. 특히 1814年에 佛蘭西의 支配가 終熄된 後에는 領主의 封建的 反動까지 試圖되었다. 따라서 農奴解放의 完成은 1848年의 “三月革命”(Märzrevolution)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한편 農場領主制가 支配的이었던 엘베江(Elbe) 以東의 普魯시아에서는 18世紀 後半期以來 君主에 의한 王領地에서의 農奴解放이 斷行되었다. 그리고 君主는 王領地以外의 領地에 까지 그것을 施行하도록 했다. 그러나 領主들은 그것을 拒否함으로써 王領地 以外에서는 19世紀에 들어서도 農奴制度는 一般的으로 存續되고 있었다. 領主들에 의한 農奴解放이 期待될 수 없는 狀態에서 그러한 課業은 君主에 의해서 遂行되어야만 했다.

普魯시아의 農奴解放을 斷行하고 近代의 農民關係를 成立시키는 契機를 마련한 것은 스타인-하르덴베르크(Stein-Hardenberg)의 一連의 改革이었다. 佛蘭西의 支配下에서 普魯시아의 宰相 스타인(Freiherr vom und zum Stein)은 1807年 10월에 農民解放令을 發布해서 農奴制度의 撤廢를 宣言했다. 이 解放令은 封建的인 身分制度를 撤廢하고 土地賣買의 自由, 職業選擇의 自由를 賦與하고 限嗣相續制를 撤廢한 것이었다. 스타인의 農民解放令은 一般領主의 抵抗에 直面해서 實施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1811年의 하르덴베르크(Fürst von Hardenberg)의 調整令(Regulierungsedikt)에 의해서 實施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効力이 發生하는 1816年의 布告(Deklaration)에서는 스타인의 人 改革이 크게 後退해서 領主와의 妥協的인 改革이 遂行되었다. 그 結果 自作農이 된 것은 富農뿐이고 貧農은 除外되었으며 調整令이 施行되는 過程에서 富農의 土地의 3分の 1과 貧農의 많은 土地가 領主의 所有로 歸屬됨으로서 領主의 土地所有規模는 더욱 擴大되고 土地를 喪失한 農民들은 農業勞動者가 되거나 西部의 工業地帶 또는 美國으로 移出했다. 이렇게 해서 東部 독일에 있어서

의 土地改革은 글스헤르의 近代版인 융커(Junker)가 願하는 方向에서 大土地所有制度를 確立시켰고 융커가 支配하는 資本家的 大農場經營을 成立시켰던 것이다.

農奴制度의 撤廢=土地改革과 함께 農業經營面에서도 새로운 轉換이 이루어졌다. 특히 1821年에 東部 獨逸에서는 共同地分割令이 發布됨으로서 傳統의인 農業經營에 大轉換을 가져 왔고 특히 1830年代에 들어서는 獨逸의 農學者들에 의해서 三圃農法을 止揚해서 英國의인 合理的 輪作農法의 導入, 施肥의 改良 그리고 機械利用 등이 推進되었으며 특히 리미리(Jastus von Liebig)의 化學肥料는 獨逸의 農業發展에 커다란 貢獻을 했다. 이러한 農業技術의 進歩는 當然히 從來의 粗放的인 開放耕地農業으로부터 資本과 勞動의 集約的인 改良農法으로 轉換하게 되었다. 1850年을 前後한 時期에는 休閑地는 거의 消滅되고 耕地도 擴大되었다. 이들 結果로서 獨逸農業에서는 1816—1865年에 穀物生産은 62% 그리고 家畜生産은 213% 增加했다. 於間에 人口는 約 59% 增加했다⁽³⁶⁾. 이러한 農業生産性的 增大는 國內外的 穀物需要的 增大를 背景으로 해서 農業者의 收益을 增加시켰다. 예를들면 1800年以後 50年間에 獨逸의 農業生産에서의 粗收益은 적어도 50% 그리고 合理的 農業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100% 增加했다. 農業利潤은 主로 資本家的 大農經營者인 융커에 歸屬되었고 그것이 獨逸工業化에 必要한 資本의 一部를 供給했다. 융커는 穀物生産만이 아니라 比較的 새로운 作物로서 羊毛, 雪糖무(sugar beet) 그리고 감자의 生産을 크게 增大시켰다. 그 結果 獨逸은 1850年 以後 오오스트랄리아(Australia)에 의해서 그 優位를 빼앗길때까지 스페인(Spain)에 代身해서 世界最大의 羊毛輸出國이 되었고 또한 雪糖무와 감자를 原料로 해서 융커는 直接 雪糖工業과 알콜工業을 經營하여 커다란 利潤을 올리고 있다. 獨逸에 있어서는 工業化 以前에 이미 制度和 技術面에서 近代的 變革이 이루어지고 특히 東部 獨逸에서의 융커가 支配하는 資本家的 大農經營을 中心으로 해서 農業이 크게 發展했다. 그 結果 獨逸에서는 食糧을 自給自足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輸出하고 있다. 이러한 獨逸 農業의 發展은 英國의 農業革命이 英國의 工業化에 한것과 같은 貢獻을 獨逸의 工業化에 對해서 했던 것이다.

農奴解放은 叙上한 바와 같이 獨逸農業의 近代的 發展을 가져 왔을 뿐만 아니라 獨逸의 近代的 社會關係의 成立의 基本的 要因이 되었다. 또한 거기에는 길드制度의 撤廢도 重要な 것이었다. 길드規制가 存續함으로써 農村工業의 發達이 止되고 民間의 企業家活動이 萎縮되고 있었다. 叙上한 스타인-하르덴베르그의 改革에 의해서 獨逸 특히 普魯西亞에서는 길드制度가 撤廢되어 工業經營活動의 自由가 保障되었던 것이다.

(36) W.W. Rostow(ed.), *The Economics of Take-off into Sustained Growth*, 1963, p.103; L.C.A. Knowles, *Ibid.*, pp.71-4 參照.

叙上한 制度的인 諸改革과 함께 政府는 工業化를 直接的으로 誘導했다. 英國의 秘密政
策에도 不拘하고 독일에서는 18世紀 末葉에 이미 英國機械를 設備한 纖維工場들이 設立되
고 또한 코오크스를 燃料로 한 鎔鑪도 設置되고 있으며 蒸氣機關도 導入되고 있기는 하
나 그들은 例外的인 것이고 全體적으로 보면 독일工業은 19世紀 中葉에 이르기까지 小規
模의 手工業的 水準에 머물고 있었다⁽³⁷⁾. 이러한 狀態에서 制度的 改革만으로 工業化가 自
生的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政府는 近代의 工業의 導入育成을 위해서 民間企業에 對
해서 積極的인 金融的 支援을 하고 또한 新技術의 導入 및 開發을 積極獎勵했다. 그 結果
19世紀 前半期에는 英國으로부터의 近代의 技術의 導入과 그것을 基盤으로 한 生産이 製
鐵, 採炭 그리고 綿工業 등에서 擴大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初期 工業化過程에서의 政府
의 役割은 이러한 間接的인 것보다도 直接的인 것이 보다 重要했다. 그 中에서도 가장 重
要한 것은 鐵道建設 이었다. 英國과는 달리 自然的인 交通條件이 不利한 독일에서는 鐵道
가 建設되기까지는 効果적으로 工業化를 遂行할 수가 없었다. 關稅同盟에 의한 全國的 市
場圈의 形成도 鐵道에 의해서 비로소 그의 實效를 기할 수 있었고 諸資源도 鐵道에 의해
서 비로서 有效하게 利用될 수 있었다. 鐵道는 그 自體가 莫大한 鐵需要를 結果함으로써
鐵工業을 크게 刺戟 發展시켰다. 交通革命이 工業化와 併行해서 이루어진 英國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美國에서와 같이 交通革命=鐵道建設이 先行해서 참다운 工業化가 進展을 보
게 되었던 것이다. 독일의 鐵道建設은 1830年代와 40年代에 始作되었다. 英國에서도 거
의 같은 時期에 最初의 鐵道建設의 芽이 일어나고 있다는 事實에 미추어 볼 때 독일의 鐵
道建設이 매우 이른 時期에 始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의 鐵道建設은 반드시
政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一部는 初期에는 政府의 뒷받침을 받은 民間企業에
의해서 建設되었고 또한 各 領國에서 相互連關 없이 建設되었다. 그러나 民間會社가 建設한
鐵道도 漸次的으로 政府가 運營하게 되었다. 例를들면 프러시아에서는 1840년에 鐵道の 92
%가 民間會社에 의해서 經營되고 있었는데 1850년에는 그것은 65% 그리고 1860년에는 5.5
%에 떨어지고 있다⁽³⁸⁾. 독일의 鐵道建設은 急速히 이루어져서 1850년에는 5,856km가 開通
되고 있다. 同年의 佛蘭西의 鐵道總延長距離는 2,996km에 不過하다⁽³⁹⁾. 1850년에 독일
은 東-西와 南-北으로 全國을 連結하는 幹線을 各各 3개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⁴⁰⁾. 鐵

(37) H.J. Habakkuk & M.M. Postan(ed.),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Vol. VI, pp.15,369, 370-1; J.H. Clapham, *Economic Development of France & Germany 1815-1914*, 4th ed., 1966, pp.85-9.

(38) W.W. Rostow(ed.), *op.cit.*, p.113.

(39) W.O. Henderson, *op. cit.*, p.19.

(40) *Ibid.*, p.20.

道와 함께 政府의 直接的 役割이 큰 部門은 製鐵業과 石炭業이었다. 基幹産業인 이들 部門에서는 國家는 直營企業을 設立하는 한편 民間企業에 對해서는 積極的으로 金融的 支援을 했다. 政府에 의한 銀行制度 및 株式會社制度의 確立, 길드制의 撤廢에 따른 産業의 自由의 保障 그리고 新技術의 開發을 위한 教育制度의 導入과 援助 등은 독일의 初期工業化의 戰略的 基礎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背景에서 독일의 初期工業化는 進展되었다. 19世紀 中葉의 독일에서 가장 重要한 工業은 섬유工業이었고 이 部門에서의 發展이 독일의 初期工業化에서 重要한 役割을 했다는 것은 事實이지만은 이 時期에도 政府의 工業化努力의 戰略的 部門은 鐵道を 비롯해서 石炭業, 製鐵業 그리고 機械工業이었으며 이들 諸部門의 急速한 發展이 그후의 독일 工業化의 基動力이 되었던 것이다. 19世紀 中葉에 섬유工業은 75萬人以上을 雇傭함으로써 農業 다음 가는 最大의 經濟部門이었다. 그 속에서도 가장 重要한 綿工業은 急速히 近代의 發展을 이룩하여 1860年 現在 310個工場에서 225萬鍾의 紡錘와 2萬 3,000臺의 力織機 및 142千臺의 手織機를 가지고 있으며 原綿需要量은 1836年の 15千屯에서 1861년에는 67千屯 그리고 1870년에는 10萬屯을 넘고 있다. 한편 產炭量은 1846년에 320萬屯으로서 佛蘭西와 벨기등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나 1860년에는 1,670萬屯 그리고 1871년에는 3,790萬屯이라는 急增加를 하여 首位의 英國에는 훨씬 未逮이나 世界 第2位에 오르고 있다. 鐵工業도 急速한 發展을 해서 1850年—1870年에 鐵鑛生産量은 10倍以上 增加했고 鑄鐵生産은 1870년에는 1834年の 10倍以上인 140萬屯에 達하고 있으며 銅鐵生産額도 1864년에는 1848年の 7.5倍나 되는 1,190萬타레르에 達하고 있다. 鐵生産의 이러한 急增은 크루(Krupp)工場과 같은 大企業을 中心으로 한 英國으로부터의 新技術의 導入을 基礎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鐵工業의 發展은 機械工業의 發展을 結果했다. 독일에는 中世以來 優秀한 金屬工業의 傳統이 있었으나 그것은 主로 家內手工業的인 것이었고 工業化의 進展過程에서 독일의 機械工業도 英國의 機械技術을 導入한 比較的 大規模資本(株式會社)에 의해서 크게 發展되었던 것이다⁽⁴¹⁾.

1850—70年の 工業發展을 基礎로 해서 독일은 1870年代 以後 本格的인 工業化를 遂行해서 世紀의 轉換期가 되면 독일은 여러 部門에서 先進國 英國의 水準에 到達하게 되었다. 1870年代에 이르기까지의 政府의 重工業中心의 發展戰略은 70年代 以後에는 더욱 本格化된다. 1870年 以後의 독일에 있어서는 綿工業을 中心으로 한 섬유工業도 보다 發展하는

(41) *Ibid.*, pp.29-38 參照.

것이지마는 工業發展의 中心은 石炭 및 製鐵工業이었다⁽⁴²⁾. 이들 工業의 大發展에는 普佛戰爭의 結果로서의 알사스·로레인(Alsace-Lorraine)의 독일에의 歸屬에 따르는 大原料供給源의 確保라든가 鹽基性베셀머製鋼法(basic Bessemer Process) 등의 새로운 技術의 導入이라고 하는 諸條件이 크게 作用했다는 것은 事實이다. 독일은 또한 이러한 舊工業에서만 아니라 電氣工業 및 化學工業등 新工業에서도 커다란 發展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 新工業은 독일에서 開發된 것이다. 시멘(Werner von Siemens)의 電動機, 오토(Otto)의 汽油機關, 다이믈러(Daimler)의 石油機關, 디젤(Diesel)의 重油機關을 비롯해서 電氣分解空窒素固定法, 아리자린(alizarin)染料 등 독일 科學技術陣에 의한 一連의 新發明이 이들 新工業을 처음부터 독일에서 發展하게 했던 것이다.

初期工業化의 뒤를 이어서 1870年代以後 독일이 重化學工業을 中心으로 急速한 工業化를 遂行해 나간 데에는 叙上한 科學技術의 새로운 導入 및 開發以外에도 人口增加,⁽⁴³⁾ 資本供給의 增加, 交通機關의 革新 등 여러가지 要因들이 作用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諸要因은 그 自體로는 독일에 特有한 것이 아니라 工業化 또는 經濟成長 一般에서 必要한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 諸要因과 함께 독일의 工業過程을 特徵지우는 것은 그들 諸要因을 工業化를 위해서 有効하게 結付시킨 經濟主體의 戰略과 그것을 志向한 努力이었다. 英國의인 條件이 成熟되지 못한데서는 工業化는 經濟主體에 의해서 意識의으로 遂行되는 것이며 독일의 경우 經濟主體로서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한 것은 國家와 銀行이었다⁽⁴⁴⁾. 그들의 戰略과 行動樣式에서 독일의 工業化는 誘導되었고 그 過程에서 독일의인 特徵이 나타났던 것이다. 1871年の 統一 독일帝國의 形成은 독일의 工業化를 새로운 次元에서 促進시키는 基本的 契機가 되었다. 그 以前에 이미 經濟的 統合을 이룩한 독일은 政治的 統一을 이룩함으로써 名實共히 統合된 힘으로 工業化政策을 推進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普佛戰爭의 結果로서의 北海 및 바르드海의 諸港이 있는 슈레스비히-홀스타인(Schleswig-

(42) W.O. Henderson, *op. cit.*, p.66.

(43) 독일人口는 1816년에는 2480萬人, 1875년에는 4250萬人, 1885년에는 4670萬人, 1895년에는 5200萬人, 1905년에는 6030萬人, 1915년에는 6790萬人으로 增加하고 있으며 每10年の 增加率은 1816~1825년에 13.2%, 1855~1865년에 9.4%, 1865~1875년에 7.5%, 1875~1885년에 9.9%, 1885~1895년에 11.3%, 1895~1905년에 16.0%, 1905~1915년에 12.5%가 되고 있다. 이 數字에는 國外移住者數는 包含되어 있지 않으므로 人口의 自然增加는 보다 큰 것이었다. 가장 移民이 많았던 1840年代에서 80年代末에 이르는 期間에 434萬人이 海外로 移住했고 1821~1930년에는 約 600萬人이 移住했다. 移住先은 大部分이 美國이었다. Gustav Stolper, *Deutsche Wirtschaft Seit 1870*, 1964; 坂井榮八郎譯, 『現代ドイツ經濟史』, 1969. p.24參照. 本稿에서는 日譯을 利用했다. 19世紀 독일의 出生率은 매우 높았다. L.C.A. Knowles, *op. cit.*, p.156.

(44) A.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1962 및 H.J. Habukkuk & M.M. Postan(ed.),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Vol. VI, pp.364, 437 參照.

Holstein)과 無盡藏의 鐵鑛資源을 가지고 製鐵, 機械 및 鑛山工業地帶이기도 한 알사스-로렌(Alsace-Lorraine)의 독일에의 編入 그리고 독일의 金本位制의 確保 및 工業化를 위한 資金으로서 重要的 役割을 한 50億金프랑의 對佛戰爭賠償金⁽⁴⁵⁾의 獲得은 독일의 70年代以後의 急速한 工業發展에 重要的 意義를 가졌던 것이지만 그와 아울러 普魯西亞를 中心으로 한 독일의 政治的 統一-독일帝國의 成立은 보다 根本的인 重要性을 가지는 것이었다. 즉 독일帝國의 強力한 經濟政策의 施行은 이 時期의 工業發展의 基礎가 되었던 것이다.

1867年-70年에 비스마르크(Bismarck)의 主導下에 北部 독일聯邦은 독일商船 및 北部 독일遞信部의 設置, 독일産業法典, 度量衡의 미터法導入, 會社法의 成立 등 一連의 重要的 經濟的 改革을 遂行했으며 그 뒤를 이어 帝國政府는 各種 通貨를 마르크貨로 統一한 通貨法을 成立시키고(1873年) 金本位制를 導入하고(1873年) 國立銀行인 帝國銀行을 設置하고 商標法(1874年) 및 特許法(1877年)을 成立시키는 등의 經濟的 改革을 斷行했다. 그리고 經濟的 및 軍事的 觀點에서 비스마르크의 主導下에 全 독일 鐵道의 國有化計劃이 推進되어 1914年까지는 그것이 實現되고 있다. 또한 政府는 重工業, 公益事業, 銀行등에서도 國家的 企業活動을 漸次的으로 擴大해 나갔다. 한편 비스마르크의 關稅政策은 독일工業化의 方向과 性格을 크게 規定했다. 普佛戰爭後 독일帝國은 普魯西亞의 大地主인 容커의 立場에서 自由貿易을 志向했었으나 그 結果 英國의 工業製品의 殺到에 의해서 독일工業이 큰 打擊을 받을 뿐만 아니라 특히 低廉한 美國 小麥의 大量流入으로 말미암아 독일農業도 같은 打擊을 받게되자 1879年을 期해서 비스마르크는 保護主義에 決定的인 轉換을 했다. 이러한 保護關稅는 東部の 容커에게는 農業利潤을 그리고 西部 및 西南部의 輕工業 및 重工業者에게는 工業利潤을 確保해 줌으로서 國內産業育成이라는 目的을 達成시키고 同時에 陸軍增強을 위한 財政收入 增大의 目的에도 奉仕했다. 이러한 保護關稅政策은 國內의 農業資本과 工業資本과의 利害關係의 一致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것은 當然히 外國의 反撥에 부딪치게 되었다. 비스마르크의 後任者인 카프리비(Capriivi)는 1893年 및 94년에 穀物關稅를 引下했다. 이것은 農業資本의 犧牲에서 工業資本의 利益을 擁護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容커는 保護關稅의 施行을 要求하여 工業資本의 利害關係와 對立했으나 結局 緊迫한 國際情勢下에서 海軍力增強-艦隊建造를 支援한다는 條件으로 兩者의 利害關係가 妥協되어 1903年에는 全面的인 高關稅政策(부로우-Bülow 關稅)이 施行되었다. 이것은 諸外國

(45) 이것이 工業化過程에서 독일로 하여금 外國資本에의 依存性을 적게한 重要的 理由의 하나이다. G. Stolper, *op. cit.*, 日譯, p.33.

에 대해서 國內市場은 크게 閉鎖함으로서 國內의 農業 및 工業資本을 結集하는 政策이었으며 그러한 속에서 독일은 對外市場에서의 덤핑 그리고 增強된 武力을 背景으로 한 海外市場의 開拓 그리고 植民地獲得이라는 方向을 取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結果적으로 第1次大戰에의 길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強力한 國家政策의 施行이 勞動者의 經濟的 困窮을 結果한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비스마르크自身 健康保險, 災害保險, 老齡年金 등 一連의 社會福祉的 立法을 통해서 그러한 問題의 解決을 積極的으로 試圖했다. 그것이 充分한 效果를 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憂慮한 社會主義勢力의 擴張을 크게 沮止 못했다는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만⁽⁴⁶⁾ 工業化가 招來한 社會經濟的 害惡을 除去하려고 한 독일政府의 努力은 社會福祉政策의 先驅가 되는 것이며 그것은 독일의 勞動者保護에 一定한 貢獻을 했던 것이다⁽⁴⁷⁾.

독일工業化의 展開에 있어서는 叙上한 國家의 役割과 함께 銀行의 役割도 決定的으로 重要한 것이었다. 특히 民間의 資本蓄積이 微微한 水準에서 重化學工業을 中心으로 한 工業化를 推進하는데에 있어서는 銀行의 役割은 매우 重要한 것이었고 그러한 過程에서 銀行資本과 大產業資本과의 相互依存關係 그리고 前者의 後者에 對한 優越한 關係=金融資本主義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한 方向의 典型이 바로 독일에서 나타났던 것이다. 독일의 銀行은 英國의인 商業銀行과는 달리 “商業銀行과 投資銀行과 投資信託이 同時에 結付된 콤비네이션”⁽⁴⁸⁾ 이어서 中央銀行의 支援에 의해서 機能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의 銀行은 設立當初부터 産業을 위한 金融機關으로 認識되었고 銀行이 單獨으로 또는 産業企業이 大企業일 경우에는 콘소티움(consortium) 또는 신디게이트(syndicate) 등의 銀行團이 産業企業에 對해서 그가 發行하는 株式 또는 社債를 引受함으로써 企業의 長期資本을 供給했다. 1848년에 設立된 독일最初의 近代的 株式銀行인 쾰른(Köln)의 샤아프하우젠銀行(Sch-aaffhausen Bank)은 처음부터 炭坑業, 鑛山業, 製鋼工業 및 機械工業에서 各各 會社設立을 發起하고 있는 것이다. 銀行과 産業과의 密接한 關係는 독일의 近代的 株式銀行의 大部分이 産業企業의 時期인 1850年代와 1870年代에 設立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1850年代에는 前記 샤아프하우젠銀行 以外에 다름스타트銀行(Darmstadt Bank), 割引會社(Discount Gesellschaft), 伯林商業銀行이 設立되었고 70年代에는 독일銀行(Deutsche Bank)과 드레스덴銀行(Dresden Bank)이 設立되었다. 이들을 비롯한 많은 銀行이 商業銀行業務와 함께 投資銀行業務를 遂行했다. 이들 銀行은 産業에 資金을 貸與 할 뿐만 아니라 新會社

(46) W.O. Henderson, *The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Continent*, pp.57-8.

(47) G. Stolper, *op. cit.*, 日譯, p.49. 社會立法에 관해서는 J.H. Clapham, *op. cit.*, pp.333-8 參照.

(48) *Ibid.*, p.27.

의 株式을 賣却하고 또한 引受했다. 그 경우 이들 銀行은 金融의 支援을 해준 企業의 理事會에 代表를 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當該 企業의 經營에 直接 影響力을 미쳤다. 이렇게 해서 모든 大銀行은 主要産業 구름과 關連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密接한 關係는 雙方에서 統合을 促進하게 되었다. 企業이 擴大되고 그것이 칼텔組織에 編入됨에 따라 그와 關連을 가지고 있는 有力한 大銀行들의 合同이 展開되었다. 産業의 中心이 石炭, 鐵鋼, 電機, 化學, 造船 등 重化學工業에 농여짐에 따라서 그 部門에서 設立되는 大企業에는 大銀行의 金融의 支援이 絶對적으로 必要하게 되었다. 따라서 企業이 大規模化되고 統合되면 될수록 그에 對應해서 銀行도 大規模化되고 統合되게 되었다. 統合된 大銀行은 地方的 範圍를 벗어나서 全國에 支店網을 가진 全國的 規模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1908년에는 6大銀行⁽⁴⁹⁾이 독일의 銀行을 支配하고 있으며 이들 銀行은 必要에 따라서 콘소르티움 또는 신디케이트를 組織해서 共同으로 産業投資資金을 募集하고 있다. 重化學工業을 中心으로 한 독일의 急速한 工業化는 實로 이러한 銀行資本에 크게 依存하고 있었던 것이다⁽⁵⁰⁾.

工業化의 諸條件이 未成熟한 時點에서 그것을 急速히 推進해 나가는내에 있어서 독일에서는 國家와 銀行의 役割이 매우 컸다. 그리고 독일工業化의 戰略은 農業과 工業을 同時에 保護育成하면서도 특히 1870年代 以後에는 重化學工業中心의 發展을 志向했으며 그 속에서 나타난 國際關係의 緊張에는 軍備擴張으로 그리고 勞動者의 窮乏에는 社會改良的 政策으로 對處해 나갔던 것이다.

3. 日 本

日本の 工業化過程에는 몇가지의 局面이 있다. 첫째의 局面은 1880年代에서 1900年代에 이르는 初期工業化의 時期이다. 이 時期에 日本은 輕工業 특히 綿工業을 中心으로 急速한 工業化를 遂行했다. 日本經濟의 成長에 있어서의 “跳躍期”,⁽⁵¹⁾ “近代의 經濟成長의 第1局面⁽⁵²⁾” 또는 “日本の 産業革命⁽⁵³⁾”의 時期인 것이다. 둘째의 局面은 第1次世界大戰과 그 후 1920年代를 통한 時期이다. 이 時期에 日本은 第1次大戰에 의한 富을 背景으로 해서

(49) 6大銀行은 다음과 같다. Reichsbank, Deutsche Bank, Discount Company, Schaaffhausen Bank, Darmstadt Bank, Commercial Company of Berlin. W.O. Henderson, *op. cit.*, p. 63.

(50) 銀行은 資本輸出에서도 重要な 役割을 했다. 독일은 1880年代에 資本輸入國으로부터 資本輸出國으로 轉換했다. G. Stolper, *op. cit.*, 日譯, p. 33-4.

(51) 로스토우는 日本의 跳躍期를 1878年—1900年으로 보고 있다. W.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p. 38.

(52) 大川一司, 『日本經濟分析—成長と構造—』, 1962, pp. 33-4; W. W. Lockwood (ed.), *The State and Economic Enterprise in Japan: Essays in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1965; 大來佐武郎 監譯, 『日本經濟近代化の百年』, 1966年, pp. 53-62 參照.

(53) 小島恒久外共著, 『日本經濟論』, 1968年, pp. 8-10.

輕工業이 보다 發展하는 한편 重化學工業이 새로운 展開를 하고 또한 經濟構造도 日本에 特徵的인 二重構造가 形成되는 時期이다⁽⁵⁴⁾. 셋째의 局面은 1930年代와 40年代의 前半期이다. 이 時期는 日本經濟가 大恐慌을 克服하는 過程에서 軍備擴張과 結合된 重化學工業中心의 工業發展은 遂行해서 全體로서의 產業構造의 高度化를 가져 왔지만 그의 必然的인 歸結로서 太平洋戰爭을 誘發하고 經濟的 破局을 招來한 時期이다. 넷째의 局面은 戰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時期이다. 이 時期는 30年代의 重化學工業을 中心으로 한 發展이 戰爭에 의해서 中斷되었다가 또다시 그것이 繼續되는, 말하자면 30年代의 連續이라고 보는 立場도 있으나⁽⁵⁵⁾ 같은 重化學工業中心의 發展이라고 해도 戰前의 그것이 크게 軍需와의 關連에서 이루어졌는데 對해서 戰後의 그것이 民需中心으로 특히 最近의 技術革新過程에서 이루어졌다는 點에서 그의 性格은 크게 다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戰後의 時期도 몇개의 局面으로 區分될 수 있지만⁽⁵⁶⁾ 全體로서의 이 時期는 戰後에 世界的으로 展開된 눈부신 技術革新의 潮流를 타서 民需中心으로 重化學工業의 急速한 發展과 產業構造의 高度化가 더욱 促進된 時期이다. 이 局面의 工業에 의해서 日本經濟는 先進工業國의 水準에 到達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日本의 工業化는 1880年代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各局面에 따라서 重點과 樣相을 달리하면서도 오랜 期間에 걸쳐서 遂行되었다. 工業化가 制度的 및 技術的 變革을 통한 끊임없는 生産性的 向上的 過程이라고 본다면 日本의 工業化는 現在까지 오랜 過程을 걸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繼續될 過程이다. 그러나 그것을 歷史적으로 把握하는 우리로서는 그의 全過程이 아니라 日本이 工業社會로서의 基礎를 確立하는 時期가 重要하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日本의 工業化過程에 있어서의 첫째의 局面 즉 日本의 初期工業化의 時期를 中心으로 考察한다. 그 경우 日本의 初期의 急速한 工業化가 1880年代 以後에 始作된다고 해도 그에 先行하는 時期는 매우 重要的 意味를 가지고 있다. 工業化가 自生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水準에 到達하기 前에 그것이 意識적으로 推進되어야만 했던 日本에 있어서는 工業化의 諸條件을 政府가 造成할 必要가 있기 때문이었다. 事實 日本의 工業化는 1868年의 近代의 國民國家의 成立과 함께 國家의 目標로서 遂行되는 것이며 따라서 日本의 初期工業化過程은 이 時期를 包含해서 考察되어야 하는 것이다.

(54) 拙稿, 「1919年 前後의 日本經濟의 動向」, 『3·1 運動 50週年紀念論文集』(東亞日報社刊, 1969年) 所收 參照.

(55) 大內氏는 1930年 以後를 帝國主義段階의 國家獨占資本主義의 時期로 보고 있다. 大內氏, 『日本經濟論』, 1962年, pp. 233-4.

(56) 拙稿, 「現代日本의 經濟」, 『國際政治論叢』, 第7輯, 1967年 參照.

日本の工業化の起點은 日本이 近代의 國家로서 登場하는 1868年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日本의 工業化는 “富國強兵”을 志向한 明治政府에 의해서 위로부터 政策的으로 推進되었다. 明治維新 以前에 日本은 비록 外歴에 依해서나마 美日和親條約(1854年)에 의해서 이미 鎖國政策에서 開國政策으로 決定的인 轉換을 했고 그後 幕府나 有力한 諸藩은 各各 獨自的으로 近代의 工業의 移殖育成을 企圖하고는 있으나 그의 全國民의 規模에서의 組織的이고 持續的인 努力은 明治政府에 의해서 비로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日本에 있어서도 德川封建體制末期에는 이미 相當한 程度까지 國內經濟의 發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잘 指摘되고 있는 事實이다. 17世紀 後半부터 이미 領國的 範圍을 벗어나서 全國의 規模까지 擴大된 商品經濟는 各地에서의 都市의 成長을 結果하고 商業資本의 蓄積을 促進시켰으며 또한 그것은 經濟活動全般을 刺戟했다. 즉 商品=貨幣經濟는 農村經濟에도 浸透하여 農業經營은 自給自足的인 것으로부터 營利的인 것으로 크게 轉換하게 되었다. 그러한 속에서 農業技術이 發達하여 農業生産性이 上昇했고 또한 商品作物의 栽培가 擴大되었으며 農民分化가 進展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綿工業, 絹工業, 製紙工業등을 中心으로 하는 諸工業이 農村을 基盤으로 해서 高度의 地域의 特化를 하면서 成立・發達했으며 都市에서도 特화된 諸工業이 營爲되고 있었다. 이들 諸工業의 生産은 물론 手工業的 生産이었지만 技術水準은 높은 것이었고 工業經營形態로는 一般的으로 先貸制였으나 德川末期에는 특히 絹工業에서는 工場制手工業(manufacture)이 크게 展開되고 있다. 이렇듯 日本經濟는 封建體制末期에 이미 相當한 段階까지 內的發展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높은 發展段階가 日本으로 하여금 그후 先進工業諸國의 挑戰에 對해서 自主的으로 有効하게 應戰할 수 있게 한 基礎였다고 主張되어 왔다⁽⁵⁷⁾. 事實 日本이 不平等條約에 의한 實質的인 貿易自由化라는 狀況下에 外國의 工業製品이 大量으로 流入되는 속에서 커다란 混亂과 打撃을 받으면서도 결국 自主的으로 그에 對應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當時의 日本經濟의 水準이 높았고 國民의 對應力이 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封建體制末期의 日本經濟의 發展段階를 過度히 強調해서는 안될 것이다. 蓄積된 商業資本은 封建的 生産方法을 解體시키는 속에서 近代의 生産方法을 形成하는 契機를 造成했다는 意味에서 重要な 役割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封建體制를 存立基盤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57) 이 問題에 관해서는 梶西光速著, 『日本資本主義發達史—産業資本の成立と發展—』, 1954年, pp. 75-6; 慶應義塾經濟學會編, 『日本經濟の近代化』, 1968年, pp. 53-6; 矢内原勝編, 『近代化の條件: 日本の立場・低開發國の立場』, 1970年, pp. 41-6 參照. 알렌(G.C. Allen)도 封建末期의 日本의 經濟發展을 크게 評價하고 있다. H.J. Habakkuk & M.M. Postan,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Vol. IV, part II. p.875.

것이 스스로 産業資本으로 轉化될만한 條件이 成熟되지는 못했다. 한편 産業資本의 初期의인 存在形態인 工場手工業도 一部에서 出現하고 있을 뿐 一般的으로는 商人資本에 從屬되고 있던 先貸制的 家內工業이 優勢한 狀態에서 産業資本은 그 自身이 近代的 發展을 自生的으로 推進할 만큼 成長하지는 못하고 있었다⁽⁵⁸⁾. 이렇듯 內的諸條件이 成熟되지 못한 狀態에서 日本의 近代的發展=工業化는 독일에서 그러했듯이 政府에 의해서 위로부터 推進되었던 것이다.

1868년에 近代的 國家로 登場하게 된 日本은 同時に 처음으로 意識적으로 工業化를 推進시켜 나갔다. 그 경우에 西歐 先進工業 諸國보다도 훨씬 뒤늦어서 政治的 統一을 達성한 日本은 “富國強兵”을 國家目標로 해서 그것을 強力히 推進했다⁽⁵⁹⁾. 日本의 工業化=富國政策은 처음으로 軍備擴張=強兵과 密接한 關連을 가져서 推進되었다는 點에 그의 特徵이 있으며 이러한 特徵이 그후의 日本의 工業化過程에 特殊한 性格을 賦與했던 것이다. 工業化를 遂行할 수 있는 客觀的 諸條件이 成立되지 않은 狀態에서 明治政府는 우선 工業化를 위한 基礎的 條件을 造成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新政府는 우선 封建的 殘滓를 一掃하고 近代的 發展의 契機를 마련하기 위해서 制度的인 改革을 斷行했다. 政治的 統一을 위해서 “版籍奉還”(1869年), “廢藩置縣”(1871年), 徵兵令公布(1872年) 등 一連의 措置가 取해졌고 또한 社會經濟的 統一을 위해서 一連의 改革이 斷行되었다. 즉 政府에 의해서 身分制度가 撤廢(1869年) 됨으로서 士·農·工·商이라고 하는 四民의 平等 原則이 確立되고 職業 및 移動의 自由가 認定되었으며 特權의 組合인 길드가 解散됨으로서 經濟活動의 自由가 保障되고 또한 土地의 讓渡 및 利用의 自由가 確認되었으며 國內關稅 및 交通上의 制限이 撤廢되고 交通·通信手段이 整備됨으로서 國內市場의 統一과 商品流通의 圓滑化가 이루어졌던 것이다⁽⁶⁰⁾.

이러한 基礎的인 諸改革과 함께 政府는 一連의 積極的인 措置를 取하게 되었다. 즉 封建的 勢力인 武臣團의 最終的 解體를 가져 오게 한 秩祿處分, 近代的 土地所有權의 確立을 가져온 地租改正 그리고 近代的 貨幣·金融制度의 創設이었다. 이들 諸措置는 單純히 近代的 制度에의 變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日本의 工業化에 특히 重要한 意義를 갖는다⁽⁶¹⁾. 이 過程에서 日本은 工業化를 위한 資本蓄積을 遂行했던 것이다. 1876년에 이루어진 秩祿處分은 幕藩封建體制의 解體에 따라서 經濟的 基盤을 잃은 封建的 武士團에 對한

(58) 梶西, 『前掲書』, p. 75.

(59) W.W. Lockwoo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Japan: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1868-1938*, 1955, p. 504.

(60) *Ibid.*, pp. 9-14; 梶西, 『前掲書』, pp. 100-105 參照.

(61) 梶西, 『前掲書』, pp. 106-134; 梶西光速編, 『日本經濟史大系』5, 近代上, 1965年, 第3 및 第4 論

年金支給을 맡아온 明治政府가 莫大한 財政負擔을 輕減하기 위해서 年金에 代身해서 年金額에 따라서 公債를 支給한 措置를 말한다. 그러나 支給된 公債額은 그들의 生活維持에는 너무나 少額이었으므로 그것은 大部分이 商人이라든가 高利貸業者에게 讓渡되어 工業化를 위한 資本으로서 蓄積되었으며 一部 少數의 大士族이 가진 公債는 直接 銀行 鐵道 및 其他 工業을 위한 產業資本으로 轉換되었다. 莫大한 國家의 財政負擔을 輕減하고 結果적으로 工業化를 위한 資本蓄積의 役割을 한 秩祿處分은 또한 武士階級の 經濟的 基盤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階級分化를 招來해서 그의 上層을 近代的 產業資本家로 發揚시킨 反面에 大多數의 武士를 沒落시키고 無產化시킴으로써 工業化를 위한 勞動力으로 轉換시켰던 것이다.

地租改正(1873—81年)은 近代的 土地所有權을 確立시킴으로써 農業近代化的 基礎를 마련하게 되었지만 그의 直接的 原因은 政府의 財政收入과 密接한 關連을 가진 것이었다. 즉 工業化를 위한 政治的 經濟的 그리고 社會的인 一連의 改革과 諸改革을 遂行하는데 있어서 莫大한 財政資金이 必要한 政府는 後述하는 바와 같이 巨額의 不換紙幣의 發行과 關稅 및 消費稅收入도 限界가 있으므로 政府收入의 大部分을 그에 依存하고 있는 土地稅體系를 近代化함으로써 近代的 租稅制度를 確立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政府는 從前의 物納이고, 地方에 따라 稅率이 다르고, 收穫狀態에 따라서 量이 變動함으로써 絶對額이 不足할 뿐만 아니라 收入이 不確定했던 地租를 金納化하고 地價를 課稅基準으로 해서 收穫狀態에 影響을 받지 않은 定租率을 定함으로써 全國적으로 統一되고 金納화된 確定收入을 올릴 수 있는 近代的 地租體系를 確立했으며 또한 從前과 같이 土地占有者가 아니라 土地所有者로 하여금 地租를 納付케 함으로써 土地所有權을 確認하고 近代的 土地所有制를 確立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制度的인 近代化는 實質的인 近代化가 되지는 못했다. 즉 地租體系는 近代化되었지만 地租率은 高水準에 維持되었다. 國家稅收入의 80—85%를 차지하는 地租를 높은 水準에 維持함으로써 政府는 工業化를 위한 歲入을 確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初期의 國家目的은 農民의 負擔에서 遂行되었으며 그것은 工業化를 위한 資本蓄積의 過程이었다. 또한 그것은 後期에는 地主·小作關係의 擴大를 통해서 地主의 資本蓄積을 促進시켰으며 그것은 產業資本으로 轉化되었다. 즉 土地所有者가 納付하는 地租는 金納이고 後期에는 稅率이 低下되고 穀價가 騰貴하는데 小作農이 納付하는 地代는 物納이고 定率(收穫의 折半)이므로 地租와 地代와의 差額은 地主에게 歸屬되었던

文; 矢內原勝編, 『前掲書』, pp.95-108; W.W. Lockwood, *op.cit.*, pp.512-528; G.C. Allen, *A Short Economic History of Modern Japan, 1867-1937*, 2nd ed., 1962, pp.39-46.

것이다. 地租改正은 政府收入의 增大와 後期에는 地主의 資本蓄積을 促進함으로써 工業化의 基礎條件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後述하는 인플레이와 디플레이過程에서 農民分화를 促進시켰던 것이다.

近代의 貨幣·金融 制度의 創設도 工業化의 基礎條件으로서 重要한 것이었다. 政府는 舊來의 極度로 混亂한 貨幣制度를 統一하기 위해서 新貨幣의 鑄造를 위한 造幣局設置(1859年), “新貨條例”에 의한 金本位制의 採用(1871年), 舊貨幣의 使用禁止(1874年) 그리고 舊貨의 新貨에의 交換(1876年)을 推進함으로써 紙幣統一(1872年)과 아울러 統一的인 貨幣制度를 確立했다. 한편 近代의 銀行制度의 創設도 일찍부터 試圖되었다. 政府의 指導下에 1869年에 設立된 “爲替會社”는 그의 運營이 結局에는 失敗했지만 그것은 近代의 銀行制度의 移植에 先驅의 役割을 했다. 그 뒤에 나타난 “國立銀行條例”(1872年)에 의해서 近代의 金融機關이 設立되었던 것이나, 이 條例에 의해서 4個의 國立銀行이 設立되었다. 이들 銀行은 國法에 의해서 設立된 民間銀行이며 그것은 各各 金準備를 基礎로 해서 銀行券을 發行할 수 있는 權利를 賦與받았다. 그러나 後述하는 바와 같이 계속되는 政府의 不換紙幣發行이라는 수에서 이들 銀行의 金準備를 基礎로 한 發券이 困難해지게 되자 1876年에는 同條例가 改正되어 銀行設立條件이 緩和되고 金準備없이 資本金의 80%까지 銀行券을 發行할 수 있게 되었다. 그 結果 1879年에는 153個나 되는 銀行이 設立되었고 이들 銀行이 모두 銀行券을 發行할 수 있게 됨으로서 金準備가 없는 銀行券이 크게 膨脹하게 되었다. 한편 政府는 莫大한 財政支出을 充當하는 方法으로 高率地租의 徵收와 公債의 發行 등을 推進했으나 그것만으로는 不足해서 結局 손쉬운 方法으로 紙幣를 發行하고 그것은 크게 膨脹되었다. 이렇게 해서 銀行券과 政府不換紙幣의 大膨脹은 마침내 大인플레를 結果했던 것이다. 急進된 인플레를 收拾하는 任務를 遂行하는 것은 1880年부서의 “松方財政”이었으나 그것은 反動的으로 急激한 디플레를 가져 왔다. 1882年에는 中央銀行으로서의 日本銀行이 設立되어 그것에 兌換券發行의 權利가 賦與되었다. 銀行券整理의 過程에서 日本銀行은 中心的인 役割을 했다. 1885年에 同行의 兌換券이 發行되고 1899年末까지에는 不換의 政府 및 銀行紙幣가 全的으로 流通界에서 사라짐으로서 通貨는 完全히 統一이 되었던 것이다. 近代의 貨幣·金融制度의 創設은 그 自體가 工業化를 위한 基礎作業이었지만 그 過程에서 나타난 急激한 인플레와 디플레는 一部層에의 資本蓄積을 推進시킨 反面에 大衆의 收奪을 強行하는 契機가 되었다. 특히 農村에서는 農民分화가 促進되어 많은 農民의 無產化를 結果했다. 인플레와 디플레는 日本의 工業化를 위한 資本蓄積의 手段으로서 重要한 役割을 했던 것이다.

工業化를 위한 基礎的 諸條件이 政府에 의해서 形成되었지만 政府의 役割은 그에 그친 것이 아니라 近代的 工業의 導入과 育成도 政府에 의해서 廣範하게 推進되었다. “殖産興業”政策이 바로 그 것이다⁽⁶²⁾. 政府은 主要産業分野에서 近代的 技術을 導入한 많은 企業을 設立하여 直接經營하는 한편 많은 民間企業을 補助金を 支給한다든가 其他 方法으로 保護育成했다. 舊藩藩이 設立한 軍需工場 등 諸企業을 引受하는 한편 새로운 軍需工場을 設立해서 直營했다. 1870年代에 政府은 鐵道와 電信網을 開設했으며 또한 鑛山, 炭坑, 製鐵所, 土木, 造船所, 機械製作所, 農事試驗場 등을 設立했다. 또한 組, 綿, 시멘트, 製紙, 유리 등의 諸工業部門에서 “模範工場”을 設立해서 近代的 技術導入에서 先驅的인 役割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政府은 近代的 企業發生의 條件이 成熟되지 못한 狀態에서 創業者의 危險을 負擔하고 새로운 民間企業의 成長을 誘導했다. 事實 政府直營의 諸企業은 1880年代의 前半期에 鐵道·軍需關連産業部門은 除外해서 大部分이 民間에게 拂下되었다. 大部分이 赤字運營인 國營企業體를 拂下한다는 것은 直接的으로는 松方正縮財政의 當然한 歸結이기도 하지만은 보다 重要한 것은 이 時期가 되면 民間의 資本蓄積도 相當히 이루어지고 近代的 企業이 스스로 展開될 수 있는 客觀的 條件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殖産興業”을 위한 政府의 直接的 努力은 이 時期에 一旦 그의 戰略的 役割을 完遂하는 것이다. 國營企業의 拂下過程에서 主要 流通部門에서 蓄積된 大商業資本이 大舉 工業資本으로 轉換되었으며 그 속에서 日本의 財閥의 産業的 基礎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叙上한 政府에 의한 工業化의 前提 諸條件의 造成과 工業化政策을 基礎로해서 1880年後半부터 日本은 急速한 初期工業化過程을 걷게 되었다. 이 時期부터 1907년에 이르기까지 日本은 年平均 4% 以上の 成長率을 維持했다. 그 內容을 보면 1878—82年~1908—12년에 近代的 部門을 代表하는 工場制工業은 年 7.1%, 非近代的인 手工業的 家內工業은 年 4.5%, 近代部門을 包含한 서비스業은 年 5.4% 그리고 農業은 年 2.7%씩 成長했다. 높은 成長은 工業특히 工場工業의 急成長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工業生産額이 1890年~1910년에 4.4倍 增加하는 속에서 工場工業은 6.7倍 그리고 手工業的 家內工業은 2.5倍의 增加를 보이고 있다⁽⁶³⁾. 따라서 이 時期의 높은 成長은 工業 특히 近代的 工場工業의 急速한 發展을 基軸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日本에 있어서의 工業化 初期에 零細的 家

(62) 梶西編, 『前掲書』, 第1章; 梶西著, 『前掲書』, pp.134-138, 142-160; W.W. Lockwood, *Ibid.*, pp.503-509; Allen, *Ibid.*, pp.33-4 參照.

(63) W.W. Lockwood, *Ibid.*, p.135; 大川, 『前掲書』, p.45; 大內, 『前掲書』, pp.135-6.

內工業이 매우 重要的 役割을 하는 것이지만 1900年을 轉機로 해서 工業生産에서 차지하는 그의 重要性은 工場制工業에 의해서 凌駕되고 있다. 日本의 工業化는 이 時期에 確固한 基礎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 時期의 急速한 工業發展의 中心은 섬유工業을 中心으로 한 消費財産業이었다. 그 속에서도 특히 重要的 部門은 처음부터 近代的 基礎에서 發展한 綿紡績工業이었다. 이 部門은 1870年代에 政府의 뒷받침에 의한 2千鍾規模의 諸工場의 設立에 뒤이어 80年代 後半부터는 民間에 의한 1萬鍾規模의 大工場이 多數設立 稼動되어 急成長을 했다. 1887年—1903年에 工場數는 19에서 76으로 鍾數는 7萬 6千鍾에서 138萬 1千鍾로 生産量은 2萬 3千捆에서 80萬 1千捆으로 飛躍的 發展을 했다. 그 結果 1897年을 轉機로 해서 綿絲는 輸出超過로 轉換되어 그의 輸出은 輸入의 2.6倍以上이 되고 있다⁽⁶⁴⁾. 綿紡績部門의 急成長에 照應해서 綿織部門에서도 力織機가 導入되고 또한 그것은 紡績·綿織部門을 統合한 大企業의 成長에 의해서 發展했다. 茶와 함께 當時의 日本의 輸出의 太宗을 이루고 있던 絹絲工業部門도 導入新技術과 在來技術이 結合된 日本의인 “器械製絲”를 基礎으로 1885年—97年에 生産을 3 배나 增加하고 있다. 특히 이 部門에서는 絹織物工業部門과 함께 非近代的인 零細的 家內工業이 優勢하고 있으나 美國을 中心으로 한 海外需要의 大增加에 刺戟되어 生産을 크게 擴大시키고 있으며 80年代 後半부터는 經營規模의 擴大傾向이 進展되고 90年代에 들어서는 大企業들이 設立되는 속에서 “器械製絲”의 優位가 確立되고 있다. 이러한 섬유工業보다 약간 늦어서 近代工業으로 確立되는 것이 製紙業과 製糖業이다. 이들 部門은 80年代와 90年代 그리고 1900年代에 뒤를 이어 大企業이 나타나고 生産도 急增하고 있다. 예를 들면 洋紙生産은 1882年—92年에 5.7倍 그리고 1894年—1904年에 5倍의 增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時期의 消費財工業의 急成長에 比해서 資本財工業=重工業一般은 뒤떨어져서 1900年代 以後에야 本格的인 發展을 하게 되었다. 鐵鋼工業에서는 1887年頃부터 近代的 技術이 導入되기 始作하고는 있으나 1892年에도 國內需要의 大部分은 輸入에 依存하고 있다. 이 部門에서는 1901年의 國營八幡製鐵所의 設立과 1900年代의 民間企業의 創設에 의해서 本格的인 發展을 보게 되었다. 國營軍需工場에 주로 依存하고 있던 機械工業과 造船業도 1900年代에 들어서 民間企業中心으로 本格的 發展을 하게 되었다. 한편 鑛業은 1880年代 後半 以後에 民間資本에 의해서 크게 發展했다. 그 結果 1887年—1907年에 石炭은 約8倍,

(64) 土屋喬雄, 『産業史』, 1944年, p.227.

銅 約3倍 그리고 少量이나마 鐵도 約3倍의 生産增加를 가져 왔다. 이렇게 해서 日本의 重工業은 1900年代 以後에 近代的 發展의 基礎를 確立하고 本格的인 發展을 하게 되었다. 그 후의 日本의 工業發展은 第1次大戰時의 需要의 大增加라는 背景에서 重工業을 中心으로 展開된다. 그 過程에서 新興財閥이 多數 나타나고 또한 近代的 大企業의 急成長過程에서 日本經濟의 構造的 特質이라고 말해지는 “二重構造”가 形成되어 갔던 것이다⁽⁶⁵⁾.

그러면 이러한 日本의 初期工業化를 促進시킨 要因은 무엇인가. 日本經濟內部에 工業化 促進의 諸要因이 어느程度 形成되고 있었다는 것을 認定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包含해서 工業化를 促進시킨 諸要因을 造成하는데 있어서 政府가 한 戰略的인 役割을 強調하지 않을 수 없다. 工業化를 위한 前提條件으로서의 制度的 諸改革과 殖産興業 政策에 관해서는 叙上한 바이지만 政府의 役割은 그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政府는 直接 間接으로 工業化를 誘導했다. 日本政府의 工業化戰略은 “富國強兵”이라고 하는 基本的인 目標을 위해서 急速한 工業發展을 한다는 것이었다⁽⁶⁶⁾. 政府는 供給과 需要面에서도 積極的인 工業化推進政策을 썼다. 資本供給에서 보면 政府는 叙上한 資本蓄積에서 그리고 社會間接資本의 形成에서 또한 1880年代 前半까지는 廣範한 部門에 걸친 近代的 企業의 設立運營에서 中心的인 役割을 했으며 80年代 後半부터는 보다 間接的이지마는 民間企業의 保護育成에서 積極的인 役割을 했다. 日本政府의 主要稅收入에서 地稅는 1893年—97年 平均으로 80.4%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當時 農業이 가장 重要한 經濟部門이 있다는 데서 오는 것이기도 하나 그 보다도 農業所得에는 工業의 6倍 以上이나 되는 差別的인 高稅率이 適用된 結果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政府는 農業部門으로부터의 收入을 非農業 특히 工業部門에 補助金形態로 積極的으로 移轉시키고 있다⁽⁶⁷⁾. 政府는 農村의 負擔에서 工業化에 必要한 資本을 積極的으로 供給했다. 또한 政府는 商業資本 및 遊休資金의 産業資本化에서도 重要한 役割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政府의 工業化戰略이 農業의 犧牲위에서 工業化를 推進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政府는 農業生産性的인 上昇을 위해서 制度的 및 技術的인 變革에서 積極的인 役割을 했다. 그 結果 日本의 農業生産은 크게 增加해서 農業은 工業化의 決定的 時期에 食糧을 自給自足할 수 있었다⁽⁶⁸⁾. 問題는 農業生産은 1878—82年~1913—17年에 80%나 增大하는 속에서 主體로서의 農業發展의 果實이 農民一般에

(65) 拙稿, 「1919年 前後의 日本經濟의 動向」 參照.

(66) W.W. Lockwood, *op.cit.*, pp.504-5.

(67) 大川, 『前掲書』, p.135; 矢內原勝編, 『前掲書』, pp.83-90 參照; W.W. Lockwood, *Ibid.*, pp.521-3, 527-8.

(68) W.W. Lockwood, *Ibid.*, p.21; 大川, 『前掲書』, pp.116-120.

게 公平하게 分配되지 않고 따라서 그들의 所得이 低位에 維持되었다는 것이다. 慢性的 過剩狀態의 人口가 農村에 몰리어 工業化에 必要한 勞動力은 恒時 豊富하게, 따라서 安價하게 供給되었다. 이러한 供給面에서의 條件이 全體로서의 工業化에 有利하게 作用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需要面에서 國內市場의 擴大를 阻害했다. 工業化의 進展에 照應한 市場의 擴大는 따라서 海外에서 追求되었다. 海外市場擴大를 위한 政府 및 民間의 努力은 積極인 것이었다. 日本의 工業化의 進展에서 貿易擴大가 가지는 重要性은 決定的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日本의 海外市場 擴大의 努力은 물론 純經濟的인 方法에서도 이루어졌지만 同時에 軍事力을 背景으로 한 政治的인 方法에서도 強行되었다. 淸日戰爭(1894—5年)과 露日戰爭(1904—5年)은 經濟的側面에서 특히 重要的 意味를 가지는 것이다⁽⁶⁹⁾. “富國”과 “強兵”은 바로 여기에서 論理的으로 一致했던 것이다⁽⁷⁰⁾. 日本의 工業化가 가지는 이러한 性格은 基本的으로는 第2次大戰에 이르기까지도 持續이 되어 그것이 日本의 工業化에 하나의 特徵을 賦與했던 것이다.

III. 工業化의 諸條件과 戰略—19世紀와 20世紀

以上에서 우리는 英國과 그 뒤를 이어서 19世紀에 工業化를 遂行한 독일 및 日本의 工業化의 諸條件과 戰略을 檢討했다. 歷史上 最初의, 따라서 自生的인 工業化를 遂行한 英國에 對해서 19世紀에 後進國으로서의 독일과 日本은 各各 相異한 諸條件에서 工業化를 推進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따라서 各國의 工業化過程에서 나타난 特徵도 相當한 偏差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英國에 對한 後進國으로서 19世紀에 工業化를 遂行한 나라는 물론 독일과 日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美國, 佛蘭西, 러시아 등 많은 나라가 있으며 그들 諸國의 工業化過程에서 나타난 性格도 그들 諸國의 工業化를 위한 諸條件에 照應해서 變差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工業化過程에서 나타나는 樣相의 多樣性은 바로 工業化의 戰略이 이러한 多樣한 工業化의 諸條件을 客觀的으로 認識하고 그것을 基礎로 해서 樹立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經濟史研究의 實踐的 意義의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歷史的 個別性 및 相對性을 認識한다는 것은 歷史認識의 重要的 側面이기는 하

(69) W.W. Lockwood, *Ibid.*, pp.18-20.

(70) 小島他共著, 『日本經濟論』, pp.11-16 參照.

지마는 그것이 全部는 아니다. 歷史에 있어서의 個別性 또는 特殊性을 前提로 하면서도 그것을 하나하나 抽出하고 共通한 次元에까지 還元시키면서 一般化한다는 것이 또한 重要的한 것이다. 그 경우의 一般化도 一定한 時代的 또는 社會的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自體도 相對的인 것이지만 그것은 이미 一般化가 이루어지기 以前의 個別的 또는 特殊的 事實과는 다른 것이다. 個別的 一般에의 還元 그리고 一般을 통한 個別的 認識이라는 過程이 歷史認識의 方法으로서 매우 重要的한 것이되는 것이다. 이러한 方法은 바로 우리의 問題에 接近하는 重要的 方法이기도 하다. 즉 19世紀에 工業化를 遂行한 諸國에 관한 個別的 認識을 통해서 可能한 限의 一般性을 抽出하고 그것을 20世紀의 오늘날에 工業化過程에 있는 諸國의 그것과 比較檢討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19世紀에 工業化를 遂行한 諸國의 工業化의 諸條件과 戰略은 어떻게 一般的으로 把握될 수 있을 것인가. 工業化의 過程을 英國과 독일 및 日本을 對比해서 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나타난 性格上의 差異를 認定하면서도 그의 條件과 戰略에는 相當한 程度까지 共通性을 찾아 볼 수가 있다. 그 性格의 差異는 밑으로부터의 緩慢한 自生的 過程에 대한 위로부터의 急速히 誘導된 過程에서 나타난 것이다. 즉 그것은 英國의 工業化가 先行하는 長期間에 걸친 內生的 條件을 前提로 해서 自生的으로 自己實現을 해나간 過程인데 對해서 19世紀의 後進國의 工業化는 그러한 諸條件이 缺如된 속에서 위로부터—— 그것이 政府든 銀行이든——意識적으로 比較的 短期間에 그러한 諸條件을 造成하고 工業化를 推進해 나갔다는데에서 오는 性格上의 差異인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工業化의 基本的인 諸條件은 그것이 自生的이든 他生的이든 그리고 그의 形成期間이 길든 짧든 간에 相當한 程度로 共通한 側面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指摘할 수 있는 것은 이들 諸國의 工業化는 先行하는 社會經濟 體制로서 封建制度和 그 속에서 展開된 生産力의 增加에 의한 該制度의 自己否定을 前提로 해서 展開되었다는 것이다. 問題는 舊制度의 自己否定이 英國에서와 같이 16世紀 以來 오랜 過程에서의 內的成熟에 의해서 早期에 自生的으로 이루어 졌느냐 또는 그것이 未熟한 外的 要因에 의해서 意識적으로 이루어 졌느냐의 差異이다. 19世紀 前半에 프러시아를 中心으로 展開된 一連의 改革과 1868年에서 80年代 前半에 이르는 時期에 日本에서 이루어진 一連의 改革은 바로 英國工業化의 始期인 1760年代의 客觀的 諸條件을 形成하는 過程이었다. 封建制度의 解體와 近代의 制度의 成立은——그것이 自生的으로 이루어졌든 또는 外的으로 促進되었든——工業化의 前提條件으로서 다 같이 要請되었던 것이다.

다음에 우리가 指摘할 수 있는 것은 工業化의 戰略이다. 叙上한 工業化의 前提條件이

形成되었다고 해도 英國 以外の 諸國에서는 工業化 그 自體도 위로부터 誘導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경우의 工業化戰略은 基本的으로 農業發展을 통해서 工業發展을 促進하고 工業도 輕工業에서 重工業에로의 發展을 志向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스토우는 農業革命을 통한 農業生産性的 增加가 ① 食糧供給을 增加시킴으로서 그렇지 않을 경우 食糧輸入에 支出될 外貨를 節約할 뿐만 아니라 積極적으로는 그의 輸出에 의해서 外貨를 獲得하여 工業化에 必要한 外貨를 供給할 수 있다는 것 ② 農業所得을 增加시킴으로서 國內市場을 擴大 시키고 그것이 工業生産에 刺戟을 준다는 것 ③ 農業所得을 增加시킴으로서 租稅收入을 增大시키고 그것이 産業資本化된다는 것을 들어 工業化的 先行條件으로서의 農業의 役割이 크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으며⁽⁷¹⁾ 포스탄(M.M. Postan)도 같은 立場에서 그것을 強調하고 있다⁽⁷²⁾. 英國의 경우 農業革命은 工業化에 先行해서 그리고 그와 併行해서 이루어짐으로서 로스토우가 指摘하는 것과 같은 積極적인 役割을 했다. 事實 英國에서는 工業化가 完遂되는 무렵인 1846년에야 비로서 最終적으로 撤廢된 穀物法에 의해서 農業은 外國農業의 競爭으로 保護된 속에서 크게 發展하여 工業化的 決定的 時期를 통해서 食糧을 自給했고 그 結果 增加된 農業所得에 의해서 國內市場이 擴大되고 또한 農業所得은 工業資本으로 移轉되었다. 需要面에서 英國의 工業化는 不安定한 外國需要 보다도 農業所得의 增大에 크게 뒷받침된 安定的인 國內需要의 增大에 크게 依存했으며⁽⁷³⁾ 供給面에서 地主資本은 鑛業發展 및 社會間接資本의 形成에서 重要的 役割을 했던 것이다⁽⁷⁴⁾. 經濟活動의 自由를 標榜한 英國에서 農業이 오랫동안 保護되었다는 것은——그것은 政治的 支配勢力이 地主階級이었다는 事實과도 關係되는 것이지만——注目할만한 事實이며 結果적으로 그것은 英國의 工業化에 커다란 貢獻을 했다.

이러한 工業化에 對한 農業의 貢獻은 程度의 差異는 있으면서도 독일과 日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世紀 前半期の 一連의 制度的 改革과 技術的 進歩에 의해서 農業生産性이 크게 增加된 結果로서 食糧은 自給自足했을 뿐만 아니라 輸出까지 했으며 羊毛, 감자, 설탕구 등 工業原料의 大增産은 地主(容커)들의 工業經營을 積極化했다. 農業과 工業을 다같이 保護하고 發展시킨다는 戰略은 1870年代의 미스마르크에 의한 全面的

(71) W.W. Rostow, *op.cit.*, pp.22-3.

(72) 포스탄은 工業化的 先行條件으로서의 農業革命의 意義로서 ① 食糧供給의 增加 ② 國內市場의 擴大 ③ 勞動力供給의 增大를 들고 있다. M.M. Postan, "Agricultural Problems of Underdeveloped Countries in the Light of European Agrarian History," *Contribution and Communications*,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conomic History, Aix-en-Provence, 1962.

(73) Phyllis Deane, *op. cit.*, p.49; 譯書, p.51; 拙稿, 「近代英國農業의 展開과 經濟成長」參照.

(74) 拙稿, 「18世紀英國의 地主와 農業」參照.

인 保護主義 政策에로의 轉換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것은 一種의 아우타르키政策이며 國際關係의 惡化와 독일의 軍備擴張이라고 하는 結果를 招來했지마는 當面 우리의 問題와 關連해서 볼 때 독일의 農業도 相當한 程度까지 로스토우의인 意味에 있어서의 貢獻을 工業에 對해서 遂行했던 것이다. 한편 日本의 工業化에 있어서도 農業은 重要한 役割을 했다. 政府에 의해서 遂行된 地租改正과 역시 政府의 뒷받침에 의해서 展開된 耕地擴大, 土地改良, 品種改良, 施肥增大 등 制度 및 技術의 變革에 의해서 農業生産性이 上昇하고 또한 全體로서의 農業生産이 增大했다. 그것은 供給面에서는 로스토우의인 意味에서의 積極的 役割을 했다⁽⁷⁵⁾. 즉 日本農業은 19世紀末까지의 工業化의 決定的 時期에 食糧의 大體的인 自給自足を 했으며 또한 農業所得이 直接的으로 또는 政府를 통해서 間接적으로 工業資本化되었다. 특히 農業生産物인 絹糸와 茶는 當時의 日本의 輸出品의 太宗으로서 工業化를 위한 外貨獲得手段으로서 決定的 役割을 했다. 그러나 需要面에서는 日本農業은 工業化를 뒷받침하지를 못했다. 全體로서의 農業의 發展과 農業所得의 增大는 前近代의 小作關係의 擴大라고 하는 속에서 地主所得과 國家收入을 增大시켰지마는 農民一般의 所得增加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農民의 大多數 따라서 人口의 大部分은 低所得水準에 머물게 됨으로서 그들의 購買力은 低位에 維持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國內市場은 擴大되지를 못했다. 또한 日本農業의 生産性增加는 機械化의 普及 등 資本集約的인 方向에서가 아니라 勞動集約的인 方向에서 이루어짐으로서 그것이 로스토우의인 意味에서의 工產品 需要를 增加시키지도 못했다. 農民一般의 低所得과 함께 그것을 基盤으로 한 都市勞動者의 賃金水準도 低位에 있었으므로 그들의 購買力도 낮았다. 이러한 國內市場이 狹少한 條件에서 日本이 急速한 工業化를 遂行할 수 있었던 것은 日本은 그러한 市場을 바로 外部에서 發見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 外部市場의 擴大는 武力에 뒤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特徵이다. 淸日戰爭과 露日戰爭이 바로 그 것이다. 當爲로서의 平和的인 方法에 의해서 工業化를 推進하는데 있어서 貿易을 통한 外國市場의 擴大와 함께 國內市場 擴大의 重要性은 매우 큰 것이며 그 경우 農民一般의 所得向上과 結付된 農業發展은 매우 重要한 意義를 가지는 것이다. 日本의 農業은 工業化에 對해서 需要面에서는 큰 寄與를 하지는 못했지만 供給面에서는 매우 重要한 貢獻을 했던 것이다. 工業化에 對한 農業의 役割은 佛蘭西 러시아 그리고 美國에서도 큰 것이었다. 佛蘭西에서는 農業生産性이 漸次

(75) G.C. Allen, "Factors in Japan's Economic Growth,"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and Japan*, edited by C.D. Cowan, 1964, pp.192-3; Henry Rosovsky, "Capital Formation in Pre-War Japan: Current Findings and Future Problems," C.D. Cowan(ed.), *Ibid.*, pp.215-6.

의므로上昇해서⁽⁷⁶⁾ 工業化에 必要한 資本蓄積에는 비록 少額이나마 廣範한 農民의 貯蓄이 큰 役割을 했으며 러시아와 美國에서는 大量의 穀物의 對유럽輸出에 의해서 莫大한 外貨를 稼得했다⁽⁷⁷⁾. 특히 美國의 穀物은 19世紀의 70年代에 유럽市場에 大量으로 輸出되어 이 時期의 美國의 工業發展에 積極的인 貢獻을 했던 것이다.

工業化의 戰略으로서 우리는 農業에 있어서와 같이 工業에 있어서도 19世紀에 工業化를 遂行한 諸國에서 共通되는 特徵을 指摘할 수가 있다. 즉 그것은 輕工業에서 重工業으로 繼起的인 發展을 하고있다는 것이다. 各國의 跳躍段階에서의 主導產業으로서 綿工業이라든가 鐵道등을 強調하는 로스토우의 主張⁽⁷⁸⁾에 對해서 필리스딘은 各產業의 連關된 同時的인 發展을 重要視하고 있으며 經濟成長에서 單一產業의 主導性을 強調하는 로스토우 說은 批判되고 있다⁽⁷⁹⁾. 우리가 말하는 것은 經濟成長에 대한 어느 單一 工業部門의 役割이 아니라 工業發展의 形態가 輕工業에서 重工業으로 繼起的인 發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경우의 繼起的인 發展이라는 것은 輕工業이 發展된 다음에야 重工業이 成立해서 發展했다는 것이 아니라 兩部門 中에서 相對的으로 前者가 보다 重要했다는 것이며 그 속에서 後者도 相當한 發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例를 들면 英國의 工業化에 있어서는 綿工業을 中心으로 한 輕工業과 鐵工業을 中心으로 한 重工業이 거의 同時的으로 技術革新을 遂行하면서 近代의 發展을 하고 있다. 그러나 前者가 18世紀의 80年代에서 19世紀 初에 이르는 時期에 急速한 成長을 하고 있는데 對해서 後者는 漸次的으로 成長을 하다가 19世紀의 30年代에 들어서 鐵道建設에 따르는 需要의 大增加에 의해서 急成長을 함으로서 經濟的으로 커다란 波及效果를 미쳤던 것이다. 事實 鐵工業은 相對的으로 巨大한 資本이 必要하다든가 大需要의 繼續的 存在가 必要하다든가 하는 該工業의 性格으로 말미암아 어느 程度의 時差를 두고 發展했던 것이다⁽⁸⁰⁾. 이러한 英國의 例는 다른 나라에서도 類似하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에서는 1850年代와 60年代의 輕工業의 急速한 成長과 그와 併行한 鐵

(76) 佛蘭西에서는 1789—1848년에 休閒地가 半減되어 小麥耕作地는 50% 그리고 單位面積當生産性은 倍增되었다. L.C.A. Knowles, *op. cit.*, pp.57-8 參照.

(77) 러시아는 農業生産의 增大가 農民에게 惠澤을 주지는 않고 그의 大部分이 輸出되었다. 1881年~85—1891~95年에 러시아가 輸出한 穀物은 26,900萬프드(pood)에서 37,750萬프드로 增加했다. *Ibid.*, p.80 이러한 輸出增大가 農民에게 饑餓를 強要하면서 이루어졌다는데에 特徵이 있으나 그것이 러시아의 하나의 重要한 外貨獲得手段이 되고 있었다. 한편 美國의 農產物輸出額은 1870年에 36,100萬弗 그리고 1880年에는 68,600萬弗에 達하고 있다. *Ibid.*, p.92.

(78) W.W. Rostow, *op. cit.*, pp.52-7.

(79) Phyllis Deane, *op.cit.*, p.103; 譯書,p.110; Douglas C. North, *Growth and Welfare in the American Past: A New Economic History*, 1966, pp.86-9, 121.

(80) Phyllis Deane, *Ibid.*, 100-102; 譯書,pp.108-9.

工業의 漸次的 發展을 歷史的 前提로 해서 70年代 以後에 鐵工業과 新工業으로서의 化學 및 電機工業이 크게 發展했다. 日本에서도 鐵工業은 일찍부터 國營으로 漸次的인 成長을 해 왔으나 1880年代 및 90年代의 初期工業化는 綿工業을 中心으로 한 輕工業을 主導部門으로 해서 이루어졌으며 鐵工業은 1901年の 國營八幡製鐵所의 創設以後 露日戰爭 및 더 내려와서 第1次大戰時의 需要增加에 의해서 本格的인 發展을 했던 것이다. 篠原三代平氏는 日本의 輕工業에서 重工業에로의 繼起的인 發展을 日本의 工業發展의 “雁行形態”라고 부르고 있다⁽⁸¹⁾. 이러한 形態의 工業發展은 英國 독일 그리고 日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佛蘭西와 美國에서도 볼 수 있다. 특히 美國의 工業化는 1810年代에 綿工業을 中心으로 展開되어 19世紀 前半期에 相當한 進展을 보였고 한편 鐵工業은 植民地時代 末期 以來의 傳統을 가지고 相當한 發展을 해왔지만은 그것이 急成長하는 것은 19世紀의 40年代 以後이다. 美國의 重工業은 이 時期以後 鐵道建設을 비롯한 需要의 大増大에 의해서 本格的인 發展을 했다⁽⁸²⁾. 거셴크론은 後進國이 工業化를 遂行하는데 있어서 重工業이 가지는 戰略的 意義를 強調하고 19世紀의 後進國의 工業化가 重工業에서 始作되었다고 主張하고 있지만은⁽⁸³⁾ 그가 指摘하는 重工業은 歷史的으로는 一舉에 全面的으로 成立·發展한 것이 아니라 그에 先行해서 重工業自體의 漸次的 發展과 輕工業의 急速한 成長이 있었다는 歷史的 事實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본바와 같이 19世紀의 工業化에 있어서 基礎產業으로서의 重工業이 戰略的으로 重要視되고 政府에 의해서 그의 發展이 試圖되었다는 것은 事實이지만은 그것은 相當한 期間을 두고 發展되었고 그와 併行해서 또는 그에 先行해서 紡績工業을 中心으로 한 輕工業이 크게 發展했던 것이다. 叙上한 바와 같이 重工業은 처음부터 大規模經營을 必要로 하고 따라서 그의 設立에는 巨額의 資本이 必要하다. 또한 그의 製品은 生産財이므로 工業化가 어느程度 進展되어서 生産財에 對한 需要의 大増加가 일어나기까지는 그의 生産의 急速한 擴大는 나타나지 않는다. 叙上한 19世紀에 工業化를 遂行한 諸國에서의 重工業發達の 樣相은 바로 이러한 該工業의 性質에 照應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19世紀 諸國의 工業化戰略은 具體的 個別的으로는 變差를 나타

(81) 篠原三代平, 『日本經濟論—轉型期の解明—』, 『日本經濟大系』I, 1965, pp.296-300.

(82) 傳統的 經濟史가 經濟發展에서의 鐵道の 役割을 크게 強調하고 있는데 對해서 新經濟史의 計量的 分析을 통해서 포오겐은 鐵道の 絶대한 役割을 否定하고 있다. Robert W. Fogel, *Railroads and American Economic Growth: Essays in Econometric History*, 1964 參照. 그러나 같은 新經濟史의 立場에서도 노오드는 鐵道の 役割을 포겔보다도 크게 評價하고 있다. D.C. North, *op. cit.*, p.121.

(83) A. Gerschenkron, *op. cit.*, pp.9-10.

내면서도 基本的으로는 共通한 側面을 가지고 있다. 즉 工業化는 農業을 犧牲하거나 無視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의 發展을 前提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工業發展도 輕工業 또는 重工業의 어느 한쪽에만 置重해서가 아니라 兩者가 다같이 相互關連을 가지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輕工業이 比較的 앞서서 急速한 發展을 한 뒤에 重工業이 繼起的인 發展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 工業의 性格的인 差에서 오는 것이다. 後進國經濟開發論에서 너시(R. Nurkse)와 허쉬먼(A.O. Hirschman)에서 보는 “均衡成長”이나 “不均衡成長”이나 하는 假設은 그런대로의 理論的인 根據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⁸⁴⁾ 19世紀의 歷史的인 經驗으로는 “均衡成長”의 過程을 걸어 왔다는 것이 事實이다⁽⁸⁵⁾. 그러면 이러한 19世紀의 一般的 經驗이 오늘날의 後進國의 工業化에 어떠한 教訓을 줄 수 있을 것인가. 19世紀의 經驗이 그대로 오늘날의 現實에 適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當然한 말이지만 19世紀와 오늘날의 歷史的 條件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歷史的 條件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結論부터 말한다면 19世紀의 經驗은 오늘날의 現實에 매우 實踐的인 教訓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結論에 앞서서 19世紀에 工業化를 遂行한 諸國과 오늘날 工業化를 遂行하고 있는 諸國間에서 나타나는 歷史的 條件의 差異를 檢討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比較檢討는 매우 重要な 意義를 가지는 것이면서도 아직도 그에 照應한 研究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의 所論도 試論的인 問題提起의 性格을 가지는 것이다.

工業化의 諸條件이 時代와 國家에 따라서 個別的으로는 相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는 工業化의 戰略에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을 어느 程度 一般化해서 把握할 수 있을 것이다. 19世紀의 諸國의 工業化가 舊來의 社會經濟體制의 自己否定을 提前提로 해서 展開되었다는 것은 叙上한 바이지만 그 경우의 舊體制——그것이 없는 美國은 例外——는 封建制였다. 따라서 그들 諸國의 社會的 또는 文化的 傳統은 類似性이 濃厚한 것이었다. 文化的 類似性이 稀薄한 日本에 있어서도 그가 克服해야 했던 舊體制는 西歐的인 封建制였다는 것이 強調되고 있다⁽⁸⁶⁾. 다만 問題는 舊體制內에 그것을 否定하는 近代의 要因이 얼마나 成長하고 있는가이다. 近代의 要因이 成熟해서 自生的인 工業化를

(84) Ragnar Nurks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1955; A.O. Hirschma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1958. 李賢宰譯, 『經濟發展의 戰略』 1965年.

(85) 歷史的 分析에서도 포스탐과 필리스턴은 均衡成長을 主張하는데 對해서 로스토우와 거센크론은 不均衡成長을 主張하고 있다.

(86) 速水 融, 「日本の經濟的近代化における歷史的前提」, 慶應義塾經濟學會編, 『日本經濟的近代化』, 1968年 所收論文 및 라이샤ワー, 『日本近代化の新しい見方』, 1965年 參照.

遂行한 英國에 對해서 그것이 成熟하지 못한 余他諸國에서는 그의 過程을 政策的으로 加速시켰다는데에 差異가 있다. 그 경우의 差異는 質的인 것이 아니라 程度의 差에 不過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것도 當時의 先進國인 英國과 後進國인 독일이라든가 佛蘭西 심지어는 日本 등과의 사이에서는 克服하기 어려운 程度로 큰 것은 아니었다. 當時의 先進國과 後進國間의 經濟的 格差도 오늘날의 그것에 比해서 볼때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一般的 條件의 類似性을 前提로 해서 19世紀의 後進國은 工業化의 條件으로서 有利한 諸要因을 가지고 있었다. 技術은 大部分이 英國에서 開發된 것이 導入되었지만은 當時의 新技術은 比較的 單純해서 一旦 그것이 導入되면 獨自의으로 쉽게 利用되고 開發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었다. 따라서 比較的 少額의 資本으로도 技術導入이 可能했다. 또한 이러한 技術水準에서 設立되는 企業도 比較的 少額의 資本으로 運營될 수 있었고 企業의 總資本에 對한 固定資本의 比率도 比較的 작다. 英國에서도 當時 가장 近代의 部門이었던 綿工業은 勞動集約的인 產業이었으며 鐵工業 및 鑛業에서의 資本集約度도 그리 큰 것은 아니었다. 資本蓄積이 比較的 低位에 있어서도 資本形成은 活潑히 展開될 수가 있었다⁽⁸⁷⁾. 특히 蓄積된 資本의 產業資本에의 移轉이 圓滑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重要하다. 人口壓力은 적었으며 必要한 勞動力은 人口의 自然增加와 社會的 移動에 의해서 充分히 供給되었다. 消費의 性格도 極端한 例로서 日本과 같은 自由貿易의 環境에서도 輸入되는 工業製品은 主로 生活必須品인 綿製品 등이었으므로⁽⁸⁸⁾ 國民의 輸入品에 對한 消費支出은 一定한 限界가 주어짐으로서 그것이 貯蓄率을 上昇시키고 輸入代替產業의 發達을 促進했던 것이다.

19世紀의 工業化의 諸條件의 一般的 特徵에 對해서 20世紀의 그것은 어떠한가. 20世紀의 後進國은 19世紀의 後進國에 對해서는 물론 그들 相互間에서도 異質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묶어서 하나로서 다룬다는 것은 매우 困難한 일이다. 事實 오늘날의 後進國 開發論이 無數히 나타나고 있으면서도 一般理論에 到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事情에 그의 原因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의 後進國의 多樣性을 充分히 認識하면서 19世紀와의 對比에서 그것을 一般的으로 把握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0世紀의 後進諸國의 工業化의 條件으로서 우선 問題가 되는 것은 그들 諸國이 克

(87) S. Pollard, "Investment, Consumption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Economic History Review*, S.S. Vol. XI, No.2, 1958. 參照.

(88) 록우드씨는 1870年—1930年에 日本人의 生活慣習과 支出慣習은 크게 變化하지는 않았다고 指摘하고 있다. W.W. Lockwood, *op. cit.*, p.420. 消費패턴을 前近代의 水準에 둔채 生産力을 近代의으로 發展시킬 수 있었던 하나의 原因은 이러한 點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服해야 할 前近代의 社會經濟體制이다. 學者에 따라서는 20世紀의 後進國의 後進性의 原因으로서 西歐의인 封建制의 缺如 즉 強靱한 傳統社會의 停滯性을 強調한다. 부케(J.H. Boeke),⁽⁸⁹⁾ 프랑켈(S.H. Frankel),⁽⁹⁰⁾ 및 퍼니발(J.S. Furnivall)⁽⁹¹⁾에 의한 二重社會(dual society), 多人種社會(multiracial society) 그리고 複合社會(plural society) 등 後進社會의 特質規定도 바로 이러한 立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의 主張에는 부케에 의한 傳統社會의 頑固한 停滯性의 強調과 따라서 그 自體內에서의 近代의 發展 要因의 完全한 否定에 對해서 프랑켈에 의한 近代의 發展 要因의 肯定 그리고 퍼니벌에 의한 停滯性과 近代의 發展 要因의 同時的 肯定등 各各 뉴앙스의 差異가 있기는 하지만은 後進社會의 急速한 工業化가 不可能하다고 보고 있다는 點에서는 共通性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認識方法은 後進國의 特殊個別的 例를 一般化하거나 또는 그의 發展의 要因을 故意로 無視함으로써 後進國 스스로의 工業化의 可能性을 否定하고 結果의으로 先進國에 의한 後進國의 經濟的 支配를 合理化하는 것이다.

한편 歷史的 論議에 있어서도 오늘날의 後進國의 特殊한 條件과 그 위에 선 急速한 工業化의 困難함을 強調하는 學者가 있다. 그러한 學者도 後進國의 工業化自體를 不可能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意識의인 努力에 의해서 그것이 可能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立場에서의 主張은 歷史認識의 一面性에 基因하고 있다고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例를들면 速水 融氏는 19世紀의 後進國에 對比한 20世紀의 後進國의 歷史的 特質을 封建制의 缺如에 두고 그것이 그들의 工業化過程을 沮害하는 歷史的 條件이 되고 있다고 指摘한다. 즉 19世紀의 後進國은 뉴앙스의 差異는 있으나 封建制를 歷史的 前提로 가짐으로서 그의 崩壞=社會經濟的 分化가 工業化로 連結될 수 있었는데 對해서 20世紀의 後進國은 發展의 要因을 가진 內的 分化가 缺如된 自己完結型의 古代的 또는 오리엔트의인 體制를 歷史的 前提로 가짐으로서 스스로의 內部에 工業化에의 要因을 가지지 못함으로 生産要素의 量的 增大만이 아니라 長期에 걸친 制度와 人間類型의 變革을 包含한 近代化가 意識의으로 遂行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⁹²⁾.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그의 工業化戰略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의 歷史認識에 관한 것이다. 그의 歷史認識에 對해서도 우리는 特殊個別的인 경우를 너무 一般化하거나 또는 歷史的 發展의 要因을 故意로 無視하고

(89) J.H. Boeke, *The Interests of the Viceless Far East, Introduction to Oriental Economics*, 1948.

(90) S.H. Frankel, *The Economic Impact on Under-Developed Societies—Essay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Social Change*, 1953.

(91) J.S. Furnivall, *Netherlands India, a Study of Plural Economy*, 1939.

(92) 速水 融, 「經驗의 近代化와 意識的 近代化」, 矢內原勝綱, 『近代化의 條件』(所收論文), pp. 12-8.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東洋諸國에서는 日本을 例外로 해서 西歐的인 形態의 封建制가 展開되지 않았다는 것은 事實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諸國이 近代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發展을 하지 않은 自己完結型的, 古代社會였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例를 들어 韓國史에 있어서도 西歐的인 形態의 封建制는 發達하지 않았지만 그의 社會經濟體制는 決코 自己完結型的 古代社會가 아니라 實質的으로는 封建的 性格 따라서 그의 自己否定的 要因으로서의 內的分化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古代的 土地所有制度로서의 土地國有制는 諸王朝의 創建에 따르는 反動으로서 그의 強化가 試圖되고 形式的으로 存在했을 뿐 實質的으로는 封建的 關係가 一般的으로 展開되었고 그 속에서 農村分化가 특히 18世紀以後에 進展이 되고 있다⁽⁹³⁾. 또한 商業도 특히 17世紀末以後의 發展은 古代的 그것이나 아니라 分化促進的 性格을 가진 것이었으며⁽⁹⁴⁾ 工業經營形態로서의 매뉴팩처어(manufacture)도 檢出되고 있는 것이다⁽⁹⁵⁾. 물론 그러한 發展的 要因의 成熟度에 관해서는 앞으로 一層의 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現在로서 그것을 過度히 強調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그러한 要因이 存在하고 있었다는 史實은 매우 重要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史實은 바로 위에서 본 20世紀의 後進國一般의 社會的 停滯性 따라서 그의 自主的인 工業化의 困難性을 強調하는 諸主張의 誤謬를 根本的으로 證明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側面에서 보면 20世紀의 後進國에서도 韓國과 類似한 歷史的 傳統을 가진 諸國이 工業化의 先行條件으로서 가진 社會經濟體制를 先進國의 그것과의 對比에서 볼때 거기에는 19世紀의 後進國에서와 같이 形態 및 程度上的 差異는 있지만 “異質的社會”라고 할만큼 質的 差異가 있는 것은 아니다⁽⁹⁶⁾. 따라서 이러한 20世紀의 後進國은 그것이 外的 衝擊에 의한 것이든 또는 內的 要因에 의한 것이든 自力으로 工業化할 수 있는 可能性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20世紀의 後進國의 後進性의 原因은 어디에 있는가. 諸國의 發展段階의 差異가 相對的인 後進性의 原因이 된다는 것은 叙上한 바이지만 그 보다는도 20世紀의 後進國의 後進性을 先進國과의 對比에서 單純한 程度의 差以上の 것으로 만든 것은 根本的으로는 이들 諸國의 大部分이 相對的인 後進狀態에서 벗어나기 前에 先進諸國의 植民地的 支配를 받았다는 事實이다. 바란(Paul A. Baran)은 西歐資本主義의 侵入이 한편에서

(93) 金容燮著, 『朝鮮後期農業史研究』, 1·2卷, 1970年 및 1971年 參照.

(94) 姜萬吉, 「朝鮮後期商業資本의 成長」, 『韓國史研究』, 1, 1968; 金泳鎬, 「朝鮮後期에 있어서의 都市商業의 새로운展開」, 『韓國史研究』, 2, 1968; 韓洵勳著, 『韓國開港期の 商業研究』, 1970年 參照.

(95) 權丙卓著, 『李朝末期의 農村織物手工業研究』, 1968年.

(96) Paul A. Baran,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1957, pp.136—7; 譯書 pp.62-3.

이들 諸國의 近代의 發展을 위한 要因을 創出하기도 했지만 다른 편에서 그러한 要因의 正常的인 自己展開을 阻害하고 오히려 그것을 自己의 發展目的에 適合하도록 歪曲시키고 不具化시켰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封建社會로부터 내려온 過去의 反啓蒙主義와 恣意的 暴力이 現在의 資本主義의 合理性 및 極度の 打算的 貪慾과 結付하였다. 그들에 (西歐資本主義의 支配下에 들어간 나라의 國民——引用者) 對한 榨取는 倍加되었다. 그러나 그 果實은 生産의 富를 增加시키지 않고 海外로 流出되든지 國內의 寄生的 부르조아지를 옹호하는데 利用되었다. 그들은 끝없이 깊은 困窮속에 살았으나 보다 나은 來日에의 希望도 없었다. 그들은 資本主義下에서 살았으나 資本의 蓄積은 없었다. 그들은 옛날부터의 生計手段 즉 技術 및 職場을 잃었지만 그것에 代身하이 새로운 것을 提供할 近代의 工業은 없었다. 그들은 西歐의 先進科學과 廣範히 接觸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장 暗淡한 落後狀態에 너무르고 있었다.”⁽⁹⁷⁾ 20世紀의 後進國은 그 大部分이 歷史의 傳統 또는 人種의 特質에 의한 “異質的 社會”였기 때문에 後進狀態에 있는 것이 아니라 自體가 가진 內的 發展의 要因이 成熟되기 前에 先進資本主義에 의해서 그의 一層의 發展이 阻害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畸型化되었기 때문에 後進狀態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19世紀의 後進國과 오늘날의 그것의 工業化의 前提條件으로서의 社會經濟體制의 差異는 封建制의 存否에 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植民地의 體制의 存否에 있다. 前者가 未熟한 內的 發展의 要因은 主體的 및 意識의 急速히 成熟시키면서 工業化를 遂行해 나간데 對해서 後者에서는 그러한 餘裕없이 先進諸國의 支配下에 編入됨으로서 內的인 發展要因의 一層의 展開가 阻害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經濟發展에 奉仕할 수 있도록 歪曲化된게 固定化되어 버렸다. 따라서 20世紀의 後進國이 工業化를 遂行하기 위해서 克服해야 한 舊制度는 封建的 殘滓와 植民地의 體制라고 하는 二重의인 것이었다. 封建的 殘滓의 一掃는 工業化의 前提條件이며 植民地의 體制의 拂拭은 工業化의 成果가 對外的으로 가 아니라 對內的으로 還流하는 따라서 國民의 基礎에서 工業化를 推進하는 制度的 基礎가 되는 것이다.

19世紀의 後進國과 20世紀의 後進國과의 사이에서 나타난 工業化를 위한 前提條件으로서 自己否定되어야 할 舊制度의 根本的 差異는 그들 諸國의 固有한 社會經濟的 特質에 가 아니라 外的 要因에 의해서 強要된 植民地體制의 有無에 있었듯이 그러한 外的 要因에 의해서 形成된 工業化의 諸條件은 19世紀와 20世紀의 사이에는 커다란 差異가 있다. 우리

(97) P.A. Baran, *Ibid.*, pp. 143-4; 譯書, pp. 70-1. 引用文은 國譯文을 利用했음.

가 이미 본 19世紀의 工業化의 諸條件에 對해서 20世紀의 그것은 매우 不利한 諸側面이 있다.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20世紀의 後進國과 先進國과의 사이에는 19世紀의 그것과는 比較도 안될 만큼 큰 經濟的 格差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所得과 技術水準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後進國은 先進技術을 導入해야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國內의 在來技術과의 關連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경우 對立的 關係에 있으며 外國指向의 性向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러한 新技術의 導入은 企業의 固定資本比率을 크게 增大시키고 國內資本蓄積의 不足과 함께 外資導入의 必要性을 增大시킨다. 한편 消費面에서 보면 先進國에서의 所得의 高水準과 大衆消費時代에 照應한 19世紀에는 없었던 耐久消費財 등의 新消費財商品의 普及이 所得이 낮은 後進國에 展示效果를 미쳐 그것이 後進國에서의 先進工業國의 新消費財에 對한 需要를 增大시킨다⁽⁹⁸⁾. 先進國으로부터 들어 오는 新消費財는 19世紀의 綿製品과는 달리 반드시 生活必需品는 아니며 따라서 需要의 彈力性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消費性向을 크게 增大시킨다. 따라서 後進國에서의 貯蓄率은 低下되고 資本蓄積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蓄積된 資本도 商業資本化되고 產業資本에의 圓滑한 轉換이 이루어지지 않는 傾向이 있다. 또한 近代의 醫學의 發達에 따르는 人口의 大增加가 19世紀에는 없었던 人口壓力을 오늘날의 後進國의 工業化過程에 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後進國의 工業化의 諸條件이 19世紀의 그것과 相當히 다르고 또한 不利하다는 것은 다른 點에서도 指摘되고 있는 바이지만은⁽⁹⁹⁾ 그렇다고 해서 有利한 條件이 없는 것은 아니다. 쿠즈네츠(Simon Kuznets)는 오늘날의 後進國의 有利한 條件으로서 ① 技術의 및 社會的 發明 및 革新의 分野에서의 知識과 經驗의 增加된 蓄積과 ② 開發된 國家의 數와 그의 經濟的 成就의 擴張을 들고 있으며⁽¹⁰⁰⁾ 거센크론도 그러한 條件으로서 技術水準의 커다란 格差를 들고 있다⁽¹⁰¹⁾. 오늘날의 後進國의 工業化에는 19世紀의 경우에서 보다는 不利한 條件이 많이 있다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그러한 諸條件은 많은 努力이 必要하지마는 克服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19世紀와 20世紀의 工業化의 諸條件의 差異는 오늘날의 後進國이 가졌던 植民地의 體制와 거기에서 派生된 것들을 除外하면 相當한 程度까지 程度의 差異에 還元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後進國이 工業化를 遂

(98) R. Nurks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1955, Chapter III 參照.

(99) S. Kuznets, *Economic Growth and Structure*, pp.177-185 參照.

(100) *Ibid.*, pp.186-190.

(101) A. Gerschenkron, *op.cit.*, p.8.

行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諸條件을 客觀적으로 認識하고 그 위에서서 主體的인 戰略을 樹立하여 그것을 實行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 경우의 戰略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基本的으로는 對外依存的인 것이 아니라 國內의 經濟的 潛在力이 充分히 利用될 수 있고 또한 그의 果實이 國民全體에게 還流될 수 있는 方向에서 決定되어야 한다. 그 경우에 이미 본 19世紀 諸國의 工業化戰略의 歷史的 經驗은 우리에게 아직도 많은 敎訓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筆者：서울大學校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研究員
서울大學校商科大學 副教授〕

<Summary>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ditions and Strategies of Industrializ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Jong-Hyun Kim**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conditions and strategies of industrialization in comparative historical perspective and, through the analys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industrialization of today. The conditions of industrialization differ according to nations and times, therefore, the strategies differ also. The general features as well as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ization are required to be examined.

Keeping the requirements in mind, the author intends to study first, the cases of England, Germany and Japan, individually and concretely, and then to compare the conditions and strategies of industrialization of 19th century with those of 20th century.

Among the countries that industrialized in 19th century,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the strategies of industrialization and in the features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But, in spite of the differences in the features, we can find general characters in them. First, the traditional socio-economic systems which had to be overcome for the industrialization were—although the collapsing processes differed—the same kind of feudal systems.

Contrasting to England in which the feudal system collapsed naturally in historical process and conditions of industrialization were formulated sponta-

* The author is associate professor of economic history, College of Comme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is also research member of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neously, the governments of the 19th century backward countries had to accelerate the industrializations deliberately. Accordingly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former was spontaneous and experimental, while those of the latter were induced deliberately.

But we can find no substantial difference except that arising from the difference of backwardness. The difference of backwardness was not so great as not to be overcome by capital and technology.

Besides, though the strategies of industrialization differ among countries, we can also find common features in them. The common feature is that, in principle, the industrialization was promoted by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the heavy industry was develop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light industry.

Although the phase and the extent differ among countries, the agrarian revolution contributed greatly to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19th century. In industry itself, the light industry grew comparatively earlier than the heavy industry.

The development of heavy industry, though attempted for a long time as that of the light industry, had to have the growth of the light industry as its prerequisite. In other words, industrialization had not been attained at the expense of agriculture but through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as its precondition and the industrial development itself had not been attained through the emphasis of either light industry or heavy industry, but through the mutually depending developments of the both.

It is only that the heavy industry, because of its own attributes, developed more slowly than the light industry. So it is not unfair to say that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19th century was a process of "balanced growth".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of the 20th century are so different from those of the 19th century and also differ from one another that it is difficult to grasp them as a group. So we should see them as contrasted to those of the 19th

century, keeping the varieties of backwardness of today's underdeveloped countries in mind. Some economists emphasize the absence of occidental feudal system, i.e. the stagnation of the firm traditional society, as the cause of backwardness of today's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deny the developmental factors and the possibilities of industrialization of these countries. But we should not fail to notice the fact that, although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of 20th century have had no feudal system, they have not been self-sufficient ancient societies but have had considerable developmental factors in themselves, as one can see in the case of Korea.

Therefore, comparing the socio-economic systems, as prerequisites of industrialization, of 20th century under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similar historical traditions to that of Korea with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we can see some differences in forms and extents of the systems, but there is no essential distinction between them as the "heterogeneous society".

If there is any distinction, it should be found in the existence of colonial system that was forced by the external factors. Indeed, the cause of backwardness of 20th century underdeveloped countries is that they were under the colonial rule. This gave rise to the adverse effects of the industrialization. So,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20th century underdeveloped countries, these adverse effects have to be overcome. Also the strategies of industrialization, in principle, should be those which are not dependent on foreign countries but efficient for the use of domestic economic potentialities and for the fair distribution of fruits of that development. In that case, the author thinks,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industrialization of the 19th century could be still useful to us.